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BY: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4426

2007년 8월
교육학석사(국어교육)학위논문

# <烏有蘭傳>의 세태소설적 특성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차 선 영**

# <烏有蘭傳>의 세태소설적 특성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Ohyouranjeon>
Novel of Manners

2007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차 선 영**

# <烏有蘭傳>의 세태소설적 특성 연구

지도교수 김 수 중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국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7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차 선 영**

차선영의 교육학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07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목　　차

ABSTRACT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목적과 필요성.....1
　제2절 연구사 .....2

제2장 세태소설의 개념과 형성배경 .....5
　제1절 세태소설의 개념 .....5
　제2절 세태소설의 등장 배경 .....9

제3장 구조적인 측면에서 본 <烏有蘭傳>의 세태소설적 특성 .....12
　제1절 남성 훼절설화 구조의 수용 .....12
　제2절 세태를 반영한 배경설화의 수용 .....25

제4장 등장인물을 통해서 본 <烏有蘭傳>의 세태소설적 특성 .....30
　제1절 억압받던 여성의 변화를 보여주는 인물 .....30
　제2절 가치관의 변화를 나타낸 인물 .....34
　제3절 상층 관료의 이념을 드러내는 인물 .....38

제5장 표현 미학적 측면에서 본 <烏有蘭傳>의 세태소설적 특성 .....43
　제1절 사실 묘사 .....43
　제2절 풍자와 해학 .....45

제6장 <烏有蘭傳>의 문학사적 의의 .....52

제7장 결　론 .....54

참 고 문 헌 .....58

# 표 목 차

<표 1> 작품의 구성과 남성훼절 설화의 수용 .....24

ABSTRACT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Ohyouranjeon> Novel of Manners

Cha Seon-yeoung

Advisor : Prof. Kim su-jung Litt.D.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nover of Manner is not the type of novel that describes the picture of an appropriate society in every age. It is a novel that aims at describing the customs of any specific periods or a section of the social conditions. Its style is what seeks the events and developments thoroughly through the custom, social conditional facts.

The social - economical background, artistic background, and ideological background were the reasons of the appearance of the social condition in the latter Joseon. As the period of Joseon, with great confucianism principle in people's mind, had passed to the latter time, the servants system which kept the status system had been collapsed. The lower class started to own the servants, and even the servants owned other servants. At last the unsettledness of the status system and the developments of the agriculture - commerce and industry played the role of a catalyst that disjoint the feudal system.

Looking through the epic structure of <Ohyouranjeon>, the contingency or the biography which the writers in Joseon period used shows the originality

and novelty that can't be found anywhere else. The character is an ordinary person and the composition is simple. And also all events develop realistically and inevitably.

The background tale of <Ohyouranjeon> is the man selling out tale. It has a strong character of shameful story that reveals the hypocrisy of the selling out object. It shows the writer's creativity, and the process of deceiving the selling out object is realistic. It is admitted the sexual desire which is a true character of a human being, and it is reflected the social aspect in the latter Joseon which put the priority in the personal value rather than collective value.

None of the characters in the social condition novel is heroic or outstanding. Usually they are common and ordinary.

<Ohyouranjeon> made the actuality and reality of the work enhanced through the realistic description. And it evokes great laughter. The social condition event is that the hedonic and decadent officials try to sell out the person who is faithful to the moral confucianism idea to justify their lives.

<Ohyouranjeon> is a Chinese writing novel, and it can be a work reflecting the consciousness of intellectual class who uses Chinese writing. Old novel usually deals with the promotion of virtue and reproval of vice. However, <Ohyouranjeon> deals with the personal value out of the confucianism idea in Joseon period.

The reality of <Ohyouranjeon> has been raised through the realistic description. And also it can approach more to realistic. The characters are opposed to one another for their social status, and the difference of their values. To solve the problem, man selling out tales are accepted.

<Ohyouranjeon> was understood that it has the history of literature meaning of selling out novel on the transitional period of the old novel and modern novel by social aspect in the latter Joseon through the selection of restraint which pursued the personal value; entry of actual and realistic character; realistic description; satire and humor.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 목적과 필요성

문학은 사회의 한 반영이며 굴절이므로 어느 시대든지 사회를 비판하고 그 사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문학은 존재하게 마련이다. 조선후기에 이르면 판소리계 소설들을 비롯하여 변동하는 사회상을 반영한 작품들이 많이 나온다. 조선후기 작품의 하나인 <烏有蘭傳> 내용을 개관하고, 시대적 배경을 살펴서 작품에 드러나는 세태소설적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고소설에 있어 세태소설이라고 하는 갈래는 지금도 개념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유는 세태소설을 하나의 갈래로 설정한 적은 있으나 선행연구가 대부분 개별 작품 위주여서 이를 유형화하여 깊이 다루지 않은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이 당대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비단 현대소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세태란 어느 한 시기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선조에서도 세태소설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세태소설의 개념과 그 성격을 먼저 규명한 후 <烏有蘭傳>의 세태소설적 특징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조동일은 조선후기 소설의 성장과 변모를 '세태소설의 등장'이라는 항에서 세태소설의 개념을 '무대를 국내로 하고 잘난 척해도 별 수 없는 인물을 등장시켜 기존의 관념을 파괴하는 사건을 벌이는 작품군'[1]이라고 했다. 이는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는 세태소설을 하나의 유형으로 묶었다는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우창호가 지금까지 논의된 세태소설 개념들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어느 특정한 시기의 자질구레하며서도 심각한 사연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소설'[2]이라는 고소설과 현대소설을 아우르는 정의를 내렸다.

이 논문에 분석과 평가의 대상인 고소설 <烏有蘭傳>은 도덕 · 관념적인 삶에서 세속적 · 현실적인 삶으로 이행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도덕군자임을 자청하는 이생이 지방 관리들의 사치스럽고 향락적인 잔치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한다. 그러나 이생은 친구인 김생과 기녀의 계략으로 여색에 빠지게 되고, 자신이 귀신이 되었다고 믿을 정도로 호색성이 깊어진다. 그리고 김생을 비롯한 대중 앞에서 치욕적

1)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 지식산업사, 1994, 562쪽.
2) 우창호, 「조선후기 세태소설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35쪽.

망신을 당한다는 훼절 모티프를 수용하고 있다.[3]

<烏有蘭傳>은 같은 유형의 다른 작품들 보다 사건과 심리의 묘사가 자세하고 고소설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우연성이나 傳奇性을 찾아볼 수 없는 작품으로, 작가의 독창성과 참신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인물의 성격 또한 사실적인 표현법을 이용하여 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烏有蘭傳>의 세태소설 일면과 성격을 연구할 만한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烏有蘭傳>에 나타난 세태소설적 특징을 다루어 보기로 한다.

## 제2절 연구사

<烏有蘭傳>은 작품의 세태소설적 특성보다는 풍자소설이나 남성 훼절담과 관련 있는 소설을 설명하기 위한 작품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작품의 세태소설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烏有蘭傳>은 김기동이 학계에 처음 소개했다. 김기동은 조선조 후기 실학사상의 영향을 입은 풍자주의적 수법이 창작 소설로 작자와 창작연대에 대한 기록 없이 필사본으로만 전해오는 한문 소설이라 했다. 작풍으로 보아 영 · 정조 시대에 쓰여진 작품인 듯 하다고 했으며, 작품의 주제를 호색적인 양반의 위선적인 생활을 풍자한 것으로 설명했다.[4]

조춘호는 <烏有蘭傳>이 지배층의 위선적인 인물을 철저히 저하시키고, 계층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을 지향하는 동일의식을 반영한다고 했다.[5]

김종철은 <배비장전> 유형의 소설 연구에서 유사한 구조의 설화가 비슷한 시기에 하나는 소설로 하나는 판소리로 전승된 작품이라고 했다. 또, 주인공이 훼절이나 비속 자체가 중점이 아니라 웃음유발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중세적인 질서에서 이탈해가는 시대 상황에 대한 균형감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 했다.[6]

이수진은 <烏有蘭傳>은 판소리보다 앞선 패관문학이나 한문소설의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친구간의 우정을 희극으로 설정하고, 젊은 혈기에 지나치게 빠지기 쉬운

---

3) 훼절 모티프를 수용하고 있는 작품으로 <정향전>, <지봉전>, <종옥전>, <오유란전>, <배비장전>, <이춘풍전>, <삼선기>가 있다.
4) 김기동, 「<오유란전>고」, 『국어국문학』 20, 국어국문학회, 1959, 478~484쪽.
5) 조춘호, 「<오유란전> 연구」, 『국어교육연구』 17, 경북대학교 국어교육연구회, 1985, 57~76쪽.
6) 김종철, 「<배비장전> 유형의 소설연구」, 『관악어문연구』 제 10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5, 201~229쪽.

여색에 대한 경계와 면학을 권장하는 것이라 설명한다.[7]

이경재는 기존연구가 지나친 풍자성 강조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烏有蘭傳>이 골계성은 풍자성보다 해학성이 짙다고 보았다. 골계적 웃음을 창출하는 단계를 '분위기 조성 → 상황의 설정 → 웃음의 창출 → 웃음의 절정 → 웃음의 재창출 → 마무리' 순으로 전개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것은 작품의 골계적 효과를 한층 배가시키는 것이라 하였다.[8]

이석래는 <烏有蘭傳>에서 양반층 내부의 대립 및 적대관계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높은 가치에 있는 김생과 이생을 오유란이 밑바닥 가치로 끌어내림으로써 양반의 위성과 선비의 옹졸, 고루한 성격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풍자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9]

박기석은 <烏有蘭傳>이 표면적으로는 양반 관료사회의 우정에 두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양반 관료사회의 일상화된 호색성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았다. 이생의 입을 빌어 지방 관리의 향락적인 삶이 형태를 비판하고, 이생마저도 비속화됨으로써 양반 관료들을 총체적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10]

김복희는 <烏有蘭傳>의 구조가 순환 구조, 인과 구조, 통과의례 구조로 되어있다고 보았다. 또, 호색적인 양반을 비판하는 풍자소설이라기보다 독자에게 흥미와 교훈을 주고자 한 남성훼절 설화를 수용한 소설이라고 보았다.[11]

박미선은 <烏有蘭傳>을 주인공 이생의 패배나 비속화 자체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한 웃음 유발에 중점을 두었다. 또 조선시대 유교적 윤리에서 벗어나 개인의 가치를 다루고 있으며 사실적 표현과 필연적 인과 구조로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12]

위와 같은 견해는 양반이 기생에게 속아 망신을 당했다는 결과에 치중한 해석은 다른 작품과 관련지어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작품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분석하는 내용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烏有蘭傳>에 드러난 내용, 구조적 특성

---

7) 이수진, 「<오유란전>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8) 이경재, 「<오유란전>의 골계성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1987.
9) 이석래, 「<오유란전>」, 『조선후기 소설연구』, 경인문화사, 1992, 156~178쪽.
10) 박기석, 「<오유란전> 소고」, 『태능어문연구』 5 · 6집,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5, 542~553쪽.
11) 김복희, 「<오유란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12) 박미선, 「<오유란전>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을 분석해 세태소설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 내용 연구를 통해서 <烏有蘭傳>의 배경설화의 수용 과정, 등장인물을 통한 세태 반영의 실태, 상징적 표현인 풍자와 해학 등을 밝히고, 연구의 시각을 넓히고자 한다. 그리고 <烏有蘭傳>의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독자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전달하고자 했는지, 작품이 의미를 살피고 아울러 소설사적 의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烏有蘭傳>은 김기동 교수가 소개한 국립중앙도서관본 이외에 한국정신문화원 도서관본가 경북대학교 도서관본 등 현재 3개의 이본이 알려져있다. 국립중앙도서관본이 표지 제목은 <花事醉夢>, 내용 제목은 <烏有蘭傳>으로 동일하며, 경북대학교 도서관본은 표지 제목은 <花事醉夢全> 내용 제목은 <烏有蘭傳>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이본들에 대한 서지연구를 통해 보면 이본들 각각 뚜렷한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13]

본 연구의 분석 대본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본을 수록한 신해진, <烏有蘭傳>(『譯註 朝鮮後期 世態小說選』, 월인 ,1999)을 사용하였다.

13) 조춘호, 앞의 논문, 59~61쪽.

# 제2장 세태소설의 개념과 형성배경

## 제1절 세태소설의 개념

일반적으로 세태소설이라 하면 '풍속과 세태를 사실적으로 반영한 작품'으로 간주한다. 문학이 사회를 반영한다는 것은 물론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만 세태소설의 개념을 세태를 반영하는 양식으로 규정할 경우 몇 가지 문제점이 따른다. 문학은 단순히 문학 자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작한 작자와 그 결과물인 작품, 그것을 읽고 평가하는 독자, 그리고 그 작품의 모델인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어느 시대의 문학이 당대의 세태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 없을 것이고, 세태의 반영이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어느 한 시기로 제한할 수도 없다. 또 어떤 방식으로 세태를 반영하는지 모호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장르와 변별력이 없어지게 된다. 어느 시대이든 그 시대의 풍속과 세태는 존재하기 마련이고 모든 소설은 대체로 당시의 풍속, 제도, 인심, 유행의 모습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좀 더 협의적이고 명시적인 개념으로, 세태소설을 '어느 특정한 시기의 자질구레하면서도 심각한 사연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소설'[14]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15] 즉 세태소설이란, 모든 시대에 타당한 사회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시기의 풍속이나 세태의 한 단면을 묘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설로, 소설의 사건과 전개를 순전히 풍속 세태적인 사실에서 구하는 소설 양식이다. 따라서 세태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모든 시대에 타당한 인간적 진실을 지닌 인물이 아니라, 어떤 특정 시기의 특정 사회적 양상에 타당한 진실을 지닌 인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세태소설은 같은 주제라도 그 속에 반영되는 세태의 모습은 각기 다를 것이 예상되고, 작품에 제시된 세태는 당시의 삶을 이해하는데 큰 몫을 차지할 것이다. 그

---

14) 우창호, 앞의 논문, 35쪽.

15) 세태소설이라는 용어는 주로 현대소설에서 많이 사용되다가 1980년대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에서 고전문학에 처음으로 적용되었다. 그 뒤 고전소설 연구에서도 세태소설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개념, 시기, 성격, 작품의 논의에 있어 조금씩 차이를 보여 왔다. 조동일과 이상택은 고전소설의 세태소설을, 이수봉은 고전과 현대의 세태소설을 묶어 개념을 설정했고, 이종주는 고전소설과 초기 국문 단편소설까지의 세태소설 변모과정을 살폈지만 세태소설의 개념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다.

렇다면 '세태'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회와 관련을 맺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사회'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사회는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인간들의 공동체'라는 의미로서 포괄적인 개념인 반면, 세태는 '한 사회의 삶의 제반 형편'을 일컫는 것으로서 다소 경험적 현실과 이에 대한 현실인식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16]. 예컨대, 사회소설이 사회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라면, 세태소설은 사회가 주제로까지 나아가지 않고 배경으로만 그 구실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세태소설은 사회문제를 전면에 부각시키지 않고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세태소설의 유형적 특성에 대한 기존 연구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이상택은 '국내를 무대로 시정의 삶에 휩쓸리면서 범속한 욕망을 추구하는 평범한 일상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소설'[17]이라 했으며, 이수봉은 '모든 시대에 타당한 사회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시기의 풍속이나 세태의 한 단면을 묘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설 양식'[18]이라 했다.

이상택은 조선후기 상황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수봉은 보다 넓게 시기를 잡고자 한 것이 차이점이라 하겠다. 이들의 논의를 요약하면, 조선후기 세태소설의 유형적 특성은 조선후기의 이행기적 상황에 처한 시정의 모습을 담아내는 가운데 물질적 풍요를 중시한다는 것이며, 또한 중세 봉건사회의 사상성을 배제한 가운데 자질구레하면서도 심각한 사연을 다루되 경험지향적 세계관에 바탕을 두어 사실적으로 묘사한다는 것이다.[19] 세태소설은 그 당시 세태를 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조선후기 세태소설에는 조선후기의 세태가 잘 반영되어 있다.

조선후기 세태소설을 염두에 둘 때, 이 시기의 세태소설에 반영된 세태란, '중세적 관념'에 의해 문제시되어 드러난 사회현상이 아니라 그와는 대립되는 '합리적 · 객관적인 인식'에 의해 문제시된 당대의 현실이라 하겠다. 이 인식은 조선후기가 중세에서 근대로 전환 · 이행하는 역사적 상황에 부합하는 현실인식일 것이다. 이 현실인식이 문학적으로 표현될 때 개인적으로는 유교적인 금욕의 이념을 풍자 · 비판하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사회적으로는 이데올로기적인 명분이나 방탕한 향락적 생활 등이 비판되고 물질적 풍요를 중시하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요컨대,

16) 우창호, 앞의 논문, 29쪽.
17) 이상택, 「조선후기 소설사 개관」, 『한국서사문학사의 연구』Ⅴ, 중앙문화사, 1995, 1612쪽.
18) 이수봉, 「세태소설」,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19) 신해진, 『譯註 朝鮮後期 世態小說選』, 월인, 1999, 11쪽.

조선후기 세태소설에 반영된 세태는 '경직된 관념체계의 허위성을 폭로 · 풍자하면서 하층민의 발랄함이 함께 구현'되고 있는 양상이다.[20]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조선후기 세태소설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태소설의 분석 대상은 조선후기 작품으로 제한한다. 세태소설은 어느 시기에든 발생할 수 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현대소설도 연구 영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두드러졌던 18~19세기에 등장한 작품으로 조선후기 세태소설을 제한한다.

둘째, 세태소설의 공간적 배경은 조선이다. 조선후기 농업과 상업이 활발해지면서 서민들의 의식 성장, 신분제의 변화 등으로 인해 사회가 혼란스러웠다. 이러한 시대상황이 조선을 배경으로 한 세태소설에 반영되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적 배경이 조선인 작품으로 제한한다.

셋째, 세태소설은 주로 평범하고 일상적인 인물이 등장한다. 세태소설의 주인공들은 고소설에 곧잘 등장하는 영웅적인 인물이 아니라, 자신 앞에 닥친 문제를 쉽사리 해결하지 못하는 인물이다. 그렇지 않으면 평범하게 태어나 성격적 결함을 하나씩 지니고 있어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인간의 본성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일상적인 인물인 것이다.

그리고 근대 지향적 인물이 많이 등장한다. 공동 사회에서 이익 사회로 넘어가는 조선후기의 세태를 반영해서 물질만을 추구하는 인물이 등장하기도 하고[21] <배비장전>을 비롯한 남성의 훼절담을 다룬 작품은 중세적 가치관에 매몰되어 사는 것을 부정하고 세속적 · 현실적인 삶으로의 전환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조선 후기로 오면 견고히 다져온 중세적 가치관이 서서히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관이 필요함을 보여준 작품이라 하겠다. 또한 전대와는 달리 집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자신의 능력을 밖으로 드러내는 긍정적인 여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22]

넷째, 사건 해결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 주인공이 평범한 인물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고난과 시련이 과정을 극복하는 것도 천상의 도움이나 조력자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현실적으로 해결한다.

다섯째, 그 당시 세태가 잘 드러나야 한다. 세태소설은 조선후기의 사회상을 잘

20) 이상택, 앞의 논문, 1612쪽.
21) 대표적으로 <이춘풍전>의 추월, <옹고집전>의 옹고집 등을 꼽을 수 있다.
22) <이춘풍전>의 김씨, <옥낭자전>의 옥낭, <배비장전>의 애랑이 이에 속한다.

제시하고 있다. 조선후기 세태소설에는 무능력한 가장의 모습,[23] 계층간의 대립과 신분변동[24]이 잘 반영되어 있다. 이는 조선후기의 여성들이 적극적이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한편,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가야 할 가장이 가정의 파탄을 몰고 있는 것을 보여주며 후자는 18세기 중엽을 전후로 신분제의 동요를 작품화한 것으로 조선후기가 신분보다 경제력이 더 큰 힘을 발휘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후기 세태소설에서는 신분제가 흔들리고, 농업과 상업이 전과 달리 활발해짐으로써 서민들의 의식이 성장되어짐을 드러내야 한다. 세태소설 속에 반영되는 세태는 역사나 사회에 대해 무슨 문제를 제기하거나, 문제해결 및 개혁의 차원으로까지 나아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섯째, 세태소설에 많이 활용된 설화적 화법이 드러난 작품으로 한다. 조선후기 세태소설은 근원설화를 지니는 작품이 많아 설화와의 친연성을 보여준다. 설화적 요소가 이처럼 많이 등장하게 된 것은 독자들에게 쉬우면서도 재미있고 세태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25] 설화는 우리 모두에게 친근한 이야기로 부담 없이 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세태소설은 풍자적 수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 당시의 세태를 풍자한 작품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풍자는 무가치한 행위와 심성을 부정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이를 교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세태소설에도 이처럼 성격적 결함이 있는 인물을 희화화하여 그의 행동이 풍자된다. 대체로 남성 훼절담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는 중세적 가치관에 묶여 행동하는 인물이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데서 풍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여덟째, 세태소설은 세태 묘사가 사실적이며 소재 역시 현실에서 취하고 있는 작품으로 한다. 고소설에서 주인공 앞에 놓인 세계는 자기 힘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세태소설에서는 사실적인 사건을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위에서 살펴본 세태소설의 전형적인 특징이 <烏有蘭傳>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현실 속에 존재하는 전형적인 인간형을 작품화하여 이를 제시하고 있다. 주인공들의 현실갈등의 포착이나 문제가 잘 제시되어 있으며, 작품 내 갈등을 주로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사실주의적 성격을 비교적 잘 드러내고 있

23) <이춘풍전>, <게우사>,<이해룡전>,<진대방전> 등이 있다.
24) <김학공전>, <정수경전>, <산촌미녀> 등이 있다.
25) 우창호, 앞의 논문, 198쪽.

다. 또한, 사실적인 묘사를 주로 활용하고 풍자적인 수법이 동원되었다.

지금까지 세태소설의 개념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했다. 또한 조선후기 세태소설만이 갖는 여덟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이것이 <烏有蘭傳>에 나타나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烏有蘭傳>의 세태소설적 특성에 대해서는 3, 4, 5에서 자세히 고찰하려고 한다.

## 제2절 세태소설의 등장 배경

조선후기 세태소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이는 크게 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사회 · 경제적 배경, 예술사적 배경, 사상사적 배경이 그것이다.

먼저 사회 · 경제사적 배경을 살펴보자. 유교 이념이 깊이 뿌리박힌 조선조는 후기로 오면서 신분제를 지켜주던 노비제도가 무너지자 상민이 노비를 소유하고, 노비가 노비를 소유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양반의 특권 의식은 점차 사라지게 된다. 또한 농업과 상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농법이 개량되고, 전통적 상공업의 해체와 더불어 민간수공업과 자유상업이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서민들은 부를 축적하여 양반의 권위에 맞서 화폐 경제의 발달을 앞당기게 된다. 이와 달리 농민 중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빈민층은 이농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신분제의 동요와 농업 · 상공업의 발달은 봉건제도를 해체하는 촉매 역할을 했다.

조선 후기로 오면 예술 분야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 곧 예술 자체의 성격, 향유층의 구성, 예술 수용의 미적 태도 등에서 조선 전기와 그 성격을 달리하게 된다.[26] 전반적인 예술 분야에서 사실성, 주체성, 해학성 등의 성격을 공유하며 특히 물질적 부를 축적한 중인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권력에서 밀려나 부를 누리지 못한 선비 계층은 農工商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시선을 두지 않았던 서민층에게도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선다.

뿐만 아니라 신분의 차이를 두지 않고 중인, 천민들과 어울려 취미활동을 하는가 하면, 악공들의 지원자가 되기도 한다. 조선후기 세태소설은 이러한 여러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사회와 인간의 모습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즉 세태소설을 통해서 이러한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확인할 수 있다.

---

26) 박희병, 「조선후기 예술가의 문학적 초상」, 『대동문화연구』24, 대동문화연구원, 1990.

마지막으로 사상적 배경을 살펴보면 17~18세기에 벌열정치가 행해지면서 왕권이 악화되고, 많은 몰락 양반이 발생하게 되었다. 농촌에서는 이농의 양분화 현상이 일어나고 도시에서는 사상과 시전상인이 수공업자를 지배하여 상품을 독점 판매하는 도고상인으로 성장했다. 도고상인이 상공업을 지배하여 상품을 독점 판매하는 모순이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반성 속에 일어난 학문이 實學이다.[27]

실학이란 학풍은 사대부 중 양심적인 선비들의 비판의식에 의해 형성되었다. 성호 이익을 중심으로 한 토지제도 개혁을 통해서 소농민에게 균등한 토지 소유를 보장해 줄 것을 주장한 경세치용학파, 연암 박지원을 중심으로 상품의 유통이나 생산기구의 발전 등 기술면의 혁신을 지표로 한 이용후생학파, 또한 추사 김정희를 중심으로 선행 실학자들의 실증적 연구 방법을 계승하면서 금석 · 전고 등에 대한 격조 높은 학문성을 보여준 실사구시학파 등으로 구분된다. 이상 학자들이 내세운 농지개혁과 기술 혁신은 보다 잘 살기 위한 생활이 차원에서의 변화를 모색한 것이라면, 철저한 고증을 통한 연구 방법은 학문을 위한 올바른 자세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실학은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학문이라는 것이 잘 드러난 것이 잘 드러난다. 곧 실학은 현실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 세태소설의 형성배경에 대해서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조동일은 중세적인 사고방식의 굴레인 초경험적인 원리나 도덕적 규범에 대한 불신이 일어나고 경험적인 인식이 성장하면서 등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28] 이는 기존의 중세 이원론에 기반해 있던 영웅소설 및 가문소설과는 상이한 세계관에 기반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리고 낭만적인 성향을 띠고 있던 애정소설에 비해 이 시기의 세태소설은 사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음을 지적하는 것이어서 그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 적극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의 이러한 평가는 가문소설이 대장편으로 늘어나면서 보수화되던 시기에 또 다른 반론이 있었음을 지적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상택[29]은 우선 조선후기 사회를 중세에서 근대로,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 전환하는 이행기의 시기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그는 문화 역시 신성문화에서 세속문화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아울러 조선후기 소설사도 신성소설에서

27) 이기백, 『한국사신론』, 일조각, 1998, 277쪽.
28) 조동일, 「조선후기 소설사의 전개」, 『고전소설 연구의 방향』, 새문사, 1985, 227쪽.
29) 이상택, 앞의 논문, 1612쪽.

세속소설로 그 중심이 이동해 간 것으로 파악하는데, 이 과정에서 조선후기 세태소설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논의 구도는 조동일의 것과 거의 유사한 것이라 하겠다.

# 제3장 구조적인 측면에서 본 <烏有蘭傳>의 세태소설적 특성

소설의 의미와 형식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에 의해 연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설 분석은 그것을 하나의 총체적인 구조로 파악하고 그 구조를 이루는 요소들을 작품 안에서 찾아내야 한다. 따라서 작품의 내적 형식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작품의 구조 분석이 올바른 감상을 위한 기초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작품이 남성 훼절설화를 수용한 서사 구조가 어떻게 나타는지 서사구조를 파악하고 배경설화의 수용 양상을 파악해서 <烏有蘭傳>의 서사구조가 어떠한 세태소설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 제1절 남성 훼절설화 구조의 수용

단순구성을 한 이 작품은 사건이 평면적이고 시간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모든 사건은 우연성이 거의 없이 필연적으로 전개되며, 작자는 복선과 암시적 언급으로 다음 사건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여 독자의 흥미를 고조시킨다. 그리고 서사 단락에 남성훼절 설화의 구조를 드러내어 훼절 음모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烏有蘭傳>의 각 사건은 각기 독립적으로 되어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웃음을 유발하지만 다음 사건을 위한 원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웃음을 점점 심화시키도록 짜여져 있다.

이 작품의 주요 서사단락을 나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생년일시가 똑같은 김생과 이생이라는 두 친구가 금석(金石) 같은 우정을 맺고 학문을 닦는다.

② 어느 해에 두 사람은 같은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김생은 장원 급제하여 평양 감사가 되었고 이생은 진사 급제에 그쳤다.

③ 김생은 평안감사를 제수받고 부임하던 날, 약속했던 우정을 지키자며 이생과 동행한다.

④ 김생은 평안감영에 부임하여 이생에게 후원에다 별당을 마련해주니, 이생은 독서만 한다.

⑤ 어느 날 김생이 안타까운 마음에 이생을 위해 주안(酒案)을 베풀었어나, 이생은 도덕군자인 체하며 고루한 태도로 김생을 비난하여 주위의 비난을 산다.
⑥ 이에 김생은 오유란을 시켜 훼절시키고자 한다.
⑦ 오유란은 이튿날부터 소복(素服)으로 갈아입고 후원 별당 앞에 있는 연못에 가서 빨래를 하는 등 여러 날 동안 온갖 방법으로 유혹하기 시작한다.
⑧ 오유란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생은 체면을 불구하고 오유란에게 사랑을 고백하여 마침내 둘은 잠자리를 함께 한다. 이들의 운우지락(雲雨之樂)은 계속된다.
⑨ 김생은 이생의 이러한 전후 사정을 탐지하고는 서울에 있는 부친이 위독하다는 편지를 위조하여 이생에게 드리도록 한다.
⑩ 이생은 갑작스레 오유란과 이별을 하고 서울로 올라간다.
⑪ 김생이 부친이 쾌차했다는 편지를 꾸며 하인에게 모처에 기다리게 했다가 중도에 이생을 되돌아오게 한다.
⑫ 이생이 돌아오는 길목엔 죽은 것처럼 꾸민 오유란의 가짜 묘가 있었는데, 이생은 정말로 오유란이 죽은 줄로만 알고 제문을 지오 제사지내 주면서 목 놓아 운다.
⑬ 이생은 감영에 되돌아와 김생에게 인사하고 별당에 자려는데, 오유란이 귀신으로 변장하고 나타나자 둘은 전과 같이 서로 다시 사랑을 나눈다.
⑭ 이 과정에서 이생은 자기 자신도 귀신이 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처신한다.
⑮ 오유란이 시키는 대로 그는 옷 하나 걸치지 않은 전라(全裸)인 체로 길거리를 횡행까지 하지만 그 누구도 아는 체를 하지 않는다.
⑯ 이렇게 하여 이생은 자기가 귀신인 것을 확신한 후에 잔치석상에서 김생의 곁에 갔다가 김생이 담뱃대로 배를 찌름으로써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다.
⑰ 김생과 오유란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부끄러움을 무릅쓴 채 상경한다.
⑱ 이생은 학문에 전념하여 등과 하고 암행어사에 제수된다.
⑲ 평양으로 내려와 지난날의 치욕을 되갚고자 한다. 그러나 김생의 우정 어린 말을 듣고 서로 화해했을 뿐만 아니라 오유란도 용서해준다.
⑳ 끝으로 김생과 서로 죽을 때까지 우정을 지키며 살았다는 미담이 덧붙여 있다.

위의 서사 단락의 구분은 김생과 이생의 사회적 지위 차이로 인한 갈등을 중심으로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의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에서 ②까지는 김생

과 이생의 사회적 지위 차로 인한 갈등이 생기기 전까지로 발단, ③에서 ⑫까지는 김생이 평안감사로 부임한 이후의 사건으로 전개, ⑬에서 ⑯까지 이생이 오유란에게 훼절을 당하는 과정으로 절정, ⑰에서 ⑳까지 이생이 서울로 올라와 학업에 열중해 대과에 급제한 이후 사회적 지위 차가 해소된 이후의 사건을 결말로 보았다.

위의 서사구조에서 남성훼절 설화를 수용한 부분은 발단, 전개, 절정 부분이다. 남성 훼절설화란 '어떤 남자가 남의 책략에 속아, 평소 지켜 왔거나 지키겠다고 하던 금욕적 절조를 스스로 훼손함으로써 남의 웃음거리가 되는 이야기'[30]를 말하는데, 이들은 '훼절 대상자(주인공) - 훼절 담당자(기녀) - 훼절 모의자'라는 유형화된 인물설정과 서사 구조를 공유하고 있다. <烏有蘭傳>에서도 이러한 인물설정과 서사 구조가 잘 드러나고 있다. 남성 훼절설화의 기본 서사구조는 이렇다.[31]

(1) 어떤 양반(㉠)이 금욕적 절조를 내세우며 여색을 멀리한다.
(2) ㉠의 태도를 못마땅해 하는 다른 양반(㉡)이 ㉠의 훼절을 모의한다.
(3) 기녀가 ㉠을 훼절시키는 책임을 맡고 계획적인 유혹을 한다.
(4) ㉠이 기녀와 은밀히 정을 나눔으로써 금욕적 절조를 훼손한다.
(5) ㉡과 기녀에 의해 ㉠의 훼절 사실이 폭로된다.

㉠은 관념적 윤리규범에 충실한 도학자적 삶의 자세를 보이거나, 적어도 그러한 삶의 자세를 표방하고 있음에 비하여, ㉡은 보다 현실적이고 융통성 있는 삶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한편 기녀는 ㉡과의 공모하에 ㉠을 훼절시키는 주동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자신의 삶의 자세를 분명히 드러내지는 않지만, 대체로 ㉡의 자세에 동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훼절의 폭로 과정은 주인공의 성관 → 훼절을 꾀한 자에게 문제시 → 훼절시키는 인물의 유혹 → 훼절 → 폭로 → 망신에 이르기까지가 나타난다. 훼절시키는 인물이 자의인가 타의인가에 따라 비판적 시각이 달리 나타난다. <烏有蘭傳>에서는 훼절을 꾀한 인물의 명령에 의해서 훼절시킨다. 기녀 자신의 자의가 아닌 사대부 계층의 시각에서 훼절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사대부가 당대 특권적 사대부 계층의 향락적 호색성을 폭로하고 풍자하는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

30) 이원수, 「남성훼절설화의 실상과 의미」, 『국어교육연구』21집, 경북대 국어교육과, 1989.12.
31) 이원수의 논문에서 제시한 서사 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남성훼절 설화가 <烏有蘭傳>의 서사 구조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파악해 보기로 한다.

## 1. 발단

이 작품의 발단에서는 등장인물이 소개되고 있다. 이생과 김생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생과 김생은 문벌이나 덕망이 선조 때부터 가깝게 지내온 집안이다. 즉, 이생과 김생은 우정을 키워갈 수밖에 없는 환경적 조건들 속에서 서로 의좋게 지냈다.

**명나라 順和 연간(1457-1487), 조선국 한양 땅에 두 재상이 있었다. 한 재상의 성은 김씨요, 다른 재상의 성은 이씨라 했다. 모두 높은 벼슬을 해온 집안으로, 자체와 덕망이 서로 비슷하고 대대로 사귀니 교분이 두터웠다.**

**하루는 金 재상이 李 재상에게 말했다.**

**"우리 두 집안 자식들의 생년일시가 符契를 맞춘 듯하니 우연한 일은 아닌 것이오. 마땅히 같이 공부하게 해서 그들의 성취를 본다면 어찌 우리들 늙바탕의 즐거움이 아니오리까?"**

**李재상이 대답했다.**

**"그것이야 말로 정녕 나의 뜻입니다."**

**그러고는 한 칸의 精舍를 청소하여 한 스승 밑에서 같이 지내게 했다. 二生들도 서로 마음 속으로 맹세하였다.**

**'男兒의 功名은 조만간 반드시 이루리라. 周公과 召公의 功德은 古周에서나 이루어질 만한 것이지만, 管仲과 鮑叔의 지극한 우정은 바람(風)만은 今世에서 다시 불게 하리라. 뜰 가운데의 꽃과 시냇가의 소나무처럼 설사 빠르고 늦는 차이는 있더라도, 피차 서로 돌보아주며 잊지 아니하리라.'**

**二生들은 金石같은 굳은 우정을 맺으니, 아교로 붙이고 옻을 칠한 듯 아주 친밀히 지냈다.(210쪽)**[32]

---

32) 앞으로 작품의 인용문은 특별한 표시가 없는 경우
신해진,『譯註 朝鮮後期 世態小說選』(월인 ,1999)를 인용하며 페이지만 제시하고자 한다.
大明順和年間, 東方漢陽地, 有二宰相, 曰金, 曰李. 俱以簪纓之族, 地醜德齋, 世交殷密. 金相語李相: "吾兩家兒豚, 生年日時, 若合符契, 事不偶耳. 使當同學, 見其成就, 豈非吾儕晩景之樂哉?"李相曰: "此誠余意." 仍酒掃一間精舍, 使之同師, 連衾比床, 二生亦相與矢心曰: '男兒功名, 早晩必成. 周召之功, 可期於古周, 管鮑之風, 復吹於今世.園中之花, 澗畔之松, 設有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쌓아놓은 우정은 두 사람의 처지가 달라지면서 틈을 보이기 시작한다. 한 스승 밑에서 학문을 배우고 과거시험을 보러갔다. 그러나 김생은 장원 급제를 하고, 이생은 진사 급제에 머무르고 만다. 집안, 태어난 해와 시간, 한 스승에게서 배우기, 과거를 볼 수 있는 실력 등 동등한 조건을 갖추고 있던 두 사람이 과거 시험을 통해서 사회적 지위가 달라지게 되었다.

**날이 가고 달이 바뀌니, 二生의 학문은 해마다 깊어져 어느새 선비가 과거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충분히 닦았다. 甲子年에 이르러 나라에 큰 경사가 있었다. 玉冊이 이미 번득이고 과거 급제자를 뽑으려 할 때에, 二生들은 손을 서로 붙들고 과거장으로 들어가서 먹을 갈아 글(科題)을 지어 올렸다. 이윽고 급제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데, 한 사람은 급제를 했고 한 사람을 낙방을 했다. 낙방한 사람은 李生이고, 급제한 사람을 金生이었다. 김생은 젊은 秀才로서 예문관과 홍문관을 거치며 정3품까지 올랐다. (211쪽)**[33]

과거 시험을 치룬 후 사회적 위치가 달라지니 상황에서 이생은 평양 부임지에 함께 가자는 김생의 제의를 거절한다. 평양 동행을 권하는 김생과 거절하는 이생이 대화에서 이생은 스스로 김생과 동등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우정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김생의 입장을 이생이 받아들여 평양 부임에 동행함으로써 그들 사이의 갈등이 일단 해소된 것처럼 보인다.

**平安監司를 제수받은 날에 이생을 맞이하여 함께 가자는 뜻을 알렸다. 이에 이생이 대답했다.**

**"자네는 나라를 위하여 백성을 근심하는 承宣刺史요, 나는 오직 聖賢을 배우고 사모해야 할 공부하는 선비일세. 마땅히 지켜야할 본분과 가야 할 길이 서로 달라서 마음씀이 같지 아니하니 이것만으로도 불가할 뿐만 아니라, 또한 평양은 예로부터 번화하고도 기상이 드센 곳이므로 내가 돌아볼 곳이 못되네."**

**감사(김생)가 말했다.**

**"번화한 것은 번화한 것이고 공부는 공부이거늘 그대의 말은 지나치게 고루하네.**

---

早晩之差殊, 彼此眷顧, 不相忘也.'指金石而爲固, 若膠漆而相沕.

33) 日居月諸, 學與年深, 擧子工程, 成已造極矣. 歲在甲子, 國有大慶.玉冊已拌, 金榜將開, 二生携手入場, 研槧周旋. 及夫唱第, 一點龍額, 一嘆山外, 山外者李, 龍額者金. 金以若秀才, 履歷翰玉, 陞資進級.

**어찌 꺼림이 있으며, 처음에 맹세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그리고는 감사는 소매를 끌어 수레를 같이 타고 바로 임지로 나아갔다.(211쪽)**[34]

앞서 살펴본 발단 부분은 인물 소개와 갈등의 원인 등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다. 남성훼절 설화의 '어떤 양반이 금욕적 절조는 내세우며 여색을 멀리하는 부분'이 갈등으로 사건이 시작 된다.

## 2. 전개

전개 부분은 그 동안 틈을 보이던 두 사람의 관계가 표면화되어 나타난다. 김생은 부임 이후에 고요한 곳에 별당을 마련해 놓고 이생이 공부할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해 준다. 하루는 공부만 하는 이생을 위로해 주기 위해 김생이 잔치를 베풀고 그를 초대한다. 하지만 성인을 흠모하는 이생은 원님들이 좌우로 늘어앉았고 수많은 기생을 동반한 요란한 분위기의 잔치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러한 잔치의 모습이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비판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

**이생은 마음에는 비록 들지 않았으나 거절할 만한 이유가 없어서 책을 덮어 읽기를 그만두고는 바로 통인을 따라 왔다.** 宣化堂**에 차려놓은 음식은 처음 보는 이생의 귀와 눈을 놀라게 하였다. 42주의 많은 고을 원님들이 좌우로 늘어 앉았고, 72명의 수많은 기녀들이 앞뒤로 모시고 앉아서** 琴瑟管絃**등의** 五音**을 방안에서 연주하고 있었으며,** 金石匏土**등의** 八音**을 뜰에서 번갈아 연주하고 있었다. 그릇에 담긴 음식들은 풍성하고, 술잔은 빈번히 서로 오가고 있었다.**

**이생을 맞이하여 자리를 정하고 인사를 겨우 마치고 나니, 좌우에 앉아있던 기생들이 다투어 술잔을 권하며 노래 한 곡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때 이생은 왈칵 화를 내며 소매를 뿌리치고는 갑자기 일어나 물러가겠다며 말했다.**
**"오늘의 이 잔치는 정녕 인간의 도리를 위한 것이 아니오."**
**감사가 소매를 붙잡고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일찍부터 글공부를 하던 사람이 아니던가? 글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程伯

34) 除得箕伯之日, 卽邀李生, 語其偕往之意. 生曰: "君則爲國憂民承宣刺史也. 余惟學聖慕賢工夫士子也. 分職殊塗, 操心不同, 此不啻不可. 且箕城 古來, 繁華豪蕩之地, 余所不顧." 伯曰: "繁華自繁華, 工夫自工夫, 兄言甚固也. 何妨之有? 不記初日之矢言乎?" 乃與之携袖同車, 直赴任所.

**子를 본받자고 하지 아니함이 없어야 하겠지만, 내 마음으로 거리낌없이 일러주고자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어찌 이렇듯 업신여김이 지나친가?**
**누누이 타일렀으나 끝내 만류시키지 못했다.(212쪽)**[35]

친구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뿌리치고 나가는 이생의 태도는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해소된 것처럼 보였던 그들 사이의 갈등은 단순한 설득이나 공부를 계속하도록 해 주는 친구의 배려나 위로의 잔치로는 해소될 성격이 아닌 것이다. 김생과 이생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가치관과 현실에서 처해 있는 위치의 차이가 극복되어야 한다.

김생은 이생의 행동과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다. 이에 김생은 이생을 훼절시킬 결심을 하고 한 달 안에 이생을 훼절시킬 것을 오유란에게 명령한다.

훼절 명령을 받은 오유란은 기녀인 자신의 신분을 수절하는 과부로 가장한다. 흰 옷으로 갈아입고 이생의 별당 앞에서 얼굴을 가다듬고 맵시있게 앉아 빨래를 하기 시작한다. 이생은 기생 오유란이 아닌 수절과부 오유란에게 훼절당하는 것이다. 이생은 오유란을 보고 난 후로 방탕해져서 공부도 멀리하고, 공부만 하는 자신의 생활에 회의를 느끼게 된다.

**이생은 책을 덮고 홀로 앉아 허탈해 하면서 길게 탄식했다.**
**'사람이 세상을 사는 것이 얼마나 되며 또한 그 즐거움은 얼마나 되겠는가?'(214쪽)**[36]

사흘이나 닷새 간격으로 이생 앞에 나타나는 시간을 조정하며 유혹하는 오유란에게 이생은 마음을 빼앗겨 공부도 멀리하게 된다. 잔치에서 기생을 뿌리치고 나온 이생이 이제는 스스로 여인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해가 지자마자 빨래하는 소리를 들은 이생이 기쁜 마음에 밖을 나가 살펴보니 오유란이 빨래를 하고 있었다. 이생이 오유란에게 다가가자 오유란은 남녀

---

35) 掇劵讀罷, 卽隨通引而來, 宣化高堂, 鋪陳等節, 忽驚於初到之耳目也. 四十二洲官長, 列坐於左右, 七十二名妓女, 侍倍於前後. 琴瑟管絃五音, 繁於房中, 金石匏土八音, 迭於階畔, 杯盤狼藉, 觥籌交錯. 延生定坐, 寒喧才畢, 左右紅粧, 爭進獻酒, 唱歌一闋之除, 生勃然拂袂, 忽起告退曰: "今日之事, 誠非爲人之道也." 伯挽袖而笑曰: "兄未嘗讀書之人乎? 讀書之人, 莫不欲效程伯子, 而亦不聞吾心中無忮之訓也哉, 何如是契然過當?" 屢屢開諭, 終不得挽.
36) 掩卷獨坐, 憮然長嘆曰: "人於世間, 生且其何, 而其樂何哉?"

가 유별하다며 거리를 둔다. 이생은 그녀가 과부가 되어 수절하고 있는 여자임을 알고서 더욱 들뜨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함께하기를 청한다. 오유란이 두 번째 낭군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거절하자 이생은 자신은 굳게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하며 오유란과 잠자리를 들게 된다.

감사는 이생이 오유란에게 훼절된 것을 파악했다. 그래서 가짜 편지 두 장을 만들어 하인을 시켜 부친이 위독하다는 편지를 이생에게 전하게 한다. 이 편지로 오유란과 이생이 갑작스럽게 이별하게 했다. 이생이 급하게 서울로 올라가다 김생이 써놓은 아버지가 완쾌되었다는 편지를 받고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온다.

> **이생은 이 기쁜 소식을 듣자 실로 다행이라 여겼고, 또 돌아가라는 분부는 다시없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편지의 뜻을 하인배들에게 알리고는 즉시 말을 돌리도록 하면서, 즐거운 듯이 마부에게 분부했다.**
> **"달리는 말에 채찍을 휘둘러 빨리 달리기만을 생각하라."(219쪽)[37]**

열흘이 지난 후에 겨우 도착한 이생은 수풀 속 길 왼쪽에 새로이 생긴 무덤을 보고 괴이하게 생각한다. 지나가던 樵童들을 불러 물어보니 그 무덤이 주인이 오유란이라고 알려줘서 이생은 슬픔에 빠지게 된다. 이생은 노복을 시켜 술과 과일을 사오게 한 후 제문을 작성해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줬다.

전개 부분에서는 남성훼절 설화에서 '양반의 태도를 못마땅해 하는 다른 양반이 훼절을 모의하는 부분'과 '기녀가 양반을 훼절시키는 책임을 맡고 계획적인 유혹을 하는 부분' 이 나온다. 남성훼절 설화의 이 두 가지가 전개 부분의 사건을 이끌어 간다고 할 수 있다.

### 3. 절정

오유란이 가짜 귀신이 되고 난 이후부터가 절정 부분이다. 앞의 사건들과는 다른 이생의 모습으로 가치관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고, 이생도 호색적인 모습으로 자신이 비난하는 김생과 같은 선비의 위치가 되는 부분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

37) 生旣聞喜報, 實爲萬幸, 而又此反程之敎, 尤啻萬萬奇會, 以此書意, 頒示下輩 卽令回馬. 欣欣然分付於御者曰: "走馬加鞭, 另念疾行."

이생의 호색성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갈등이 최고조로 드러나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두 사람의 갈등이 해결될 실마리가 드러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오유란이 존재하지 않는 삶은 이생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슬픔으로 나날을 보내는 이생 앞에 귀신이 된 오유란이 나타난다. 처음에는 귀신의 존재를 의심했지만 오유란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이생 자신도 귀신이 되기로 결심한다.[38] 죽어서 귀신이 되는 두려움보다 오유란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이다.

오유란은 묘리를 내세워 발가벗은 몸으로 서로 안고 하루 밤을 보내면 이생이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튿날 새벽에 오유란이 먼저 일어나서 베갯머리에 앉아 머리를 풀어헤치고 눈물을 짜며 길게 탄식했다. 여러 명이 하인배와 노복들이 시신에 관을 짜고 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생은 자신이 죽었는가 의심을 하고는 눈물을 글썽거린다. 오유란의 자신이 계락을 써서 이생이 죽었다고 한 후에 낮에도 자고 밤이 가는 줄도 모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오유란이 이생에게 음식을 얻어 먹으러 가자고 제의를 한다. 이생이 의관을 다 갖춰 입으려고 하자 오유란은 날이 더우니 衣冠을 벗고 가벼운 옷으로 나가자고 한다. 귀신은 사람을 볼 수 있지만, 사람을 귀신을 볼 수 없다는 말로 이생에게 믿음을 주고 가벼운 홑옷만 입고 오유란과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 이방의 집에 가서 이방의 가슴을 치니 이방이 죽는 시늉을 하였다. 무당을 불러서 술과 밥을 차려놓고 귀신을 대접하면 괜찮다는 방법을 알려줘 이생은 이방의 집에서 음식을 배불리 먹고 오유란은 음식을 자루에 넣어가지고 돌아온다.

오유란은 여염집을 다니면서 음식을 먹는 것은 고상하지 못한 행동이니 이번에는 감사한테 가서 먹자고 제의한다. 처음에는 친구의 정을 생각해서 망설이던 이생은 죽어서도 친구간의 정은 멀리해서는 안된다는 오유란의 말에 김생에게 가서 음식을 얻어먹기로 결심을 한다. 대낮에 오유란은 홑치마만 걸치고 이생은 알몸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감사에게로 간다. 사람들은 감사의 명령으로 오유란과 이생을 못 본 척 한다. 슬금슬금 김생에게로 다가가는 이생의 배를 담뱃대로 쿡 찌르며 이게 무슨 꼴이냐는 감사의 말에 이생은 깜짝 놀라며 자기가 비로소 살아있음을 깨닫게 된다.

---

38) 一夕, 生喟然曰: “娘子之倏忽去就, 實非佳愜, 而同居同壙之盟, 抑又安在哉? 一生一殞, 余獨愧中. 願復沒身, 要與娘子, 偕往偕來, 豈非好意耶?”

**이생은 이에 마지못하여 허리를 구부리고 슬금슬금 앞으로 가서는 머뭇거리고 서성대면서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같아 바로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눈여겨 보며 살피고 있는데, 감사가 가만히 담뱃대로 이생이 배를 쿡 찌르면서 말했다.**

**"그대는 이 무슨 꼴인가?"**

**이생은 깜짝 놀라 털썩 주저앉고는 비로소 자기가 산 사람임을 깨달으니,** 醉夢**이 삼월 봄날에 깬 것과 같이, 첫여름에 부는 훈훈한 바람이 한가닥 불어온 것과 같이 정신이 들었다. 순간 어리둥절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으나 곧 재삼 생각해보니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었다. 이생은 자기가 속임을 당했음을 깨닫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분했으나 기운이 탁 풀리고 맥이 없어 어떻게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235쪽)**[39]

전개와 절정 부분에서는 이생, 김생과의 관계가 동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갈등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서로 다른 사회적인 위치에 따른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전개 부분의 사건은 이생의 훼절 모의, 오유란의 등장, 오유란의 가짜 죽음, 가짜 무덤, 절정 부분의 사건은 가짜 귀신, 이생의 가짜 죽음 사건 등으로 요약을 할 수 있다. 이생을 훼절시키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다음 사건을 위한 인과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독자들은 이 상황에서 다음 사건을 예측하며 글을 읽게 된다.

이생의 거짓 죽음은 현세의 삶의 종결을 뜻하지만 거추장스러운 모든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사랑을 완전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나신이라는 상태는 옷으로 가려져 있는 사회적 관계의 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옷을 벗어 사회적으로 서로 다른 계층에 있었던 두 사람의 신분이 동등해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생은 벌거벗은 몸으로 여러 사람 앞에 서게 되면서 인간으로서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경직된 성관의 이생은 죽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절정 부분에서는 '양반이 기녀와 은밀히 정을 나눔으로써 금욕적 절조를 훼손하는 부분'과 '훼절을 주도한 양반과 기녀에 의해 양반의 훼절 사실이 폭로되는 부분'

39) 生乃不得已踢蹐進前, 躕躇徘徊, 若見如知, 不卽擧措, 常目相察之際, 伯暗以煙竹, 舂其腹曰: "吾兄長者, 此何樣也?" 生乍驚自蹲, 始覺身生, 醉夢醒於三月, 薰風吹於一場. 俄怳惚而自惑, 迺丁寧而無疑. 覺其見賣, 一塊一墳, 缺然自喪, 罔知所爲.

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 4. 결말

망신을 당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열심히 공부에 전념한다. 그 결과 과거에 급제하게 되고 신하들의 추천을 받아 임금으로부터 암행어사를 제수받게 된다. 즉, 이생과 김생의 관계가 서로 동등해진 것이다. 하지만 원하던 공명을 이루었어도 설분에 목적을 둔 이생의 태도는 우정 회복이 어렵다.

김생은 보복을 위해 밤중에 암행어사 출두를 한 이생으로 인해 수청 기생 계월과 자다가 계월의 속옷을 뒤집어 입고 허둥댄다. 어사 친구인 김생에게 자신의 정성으로 인해 어사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한다.

> **"그대는 진정 남아로서 뜻을 이룬 사람이라고 말할 만하니, 자네가 이루고자 한 일은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라네. 오늘 내가 경악하고 황급하고 곤경에 빠졌던 것으로 말하면, 도리어 그대가 옛날에 속임을 당한 것보다 못하지는 않을 것일세. 한 번 깊이 생각해 보면, 그대가 별안간 영화의 길에 올랐음은 어찌 나의 한결같은 정성의 소치로 말미암은 것인 아닌가? 이로써 말할진대 또한 그대는 나의 정성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네." (239쪽)**[40]

이를 수긍한 이생은 김생과 화해를 하고 오유란을 불러 자신을 속인 죄를 문초한다. 오유란은 속인 사람보다 속은 사람이 더 문제임을 지적하고, 자신은 감사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다. 이생은 오유란의 말이 옳다고 여기며 오유란을 용서한다.

이생이 이처럼 전과 다른 것은 친구와 대등한 입장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烏有蘭傳>의 서사 구조를 살펴보면, 조선시대 작가들이 사용하던 우연성이나 전기성은 찾아 볼 수 없는 독창성과 참신성이 드러난다. 인물이 평범한 사람으로 그 구성이 단순하게 이루어져 있고, 모든 사건이 현실적이며 필연적으로 전개 되고 있다.

이생과 김생의 사회적 지위 차이로 인한 갈등을 중심으로 '갈등의 시작 - 갈등

---

40) 伯進前握手曰: "兄眞是男兒, 可謂有志者, 事竟成也. 今日, 弟之驚急困境, 反不負兄之昔者見欺, 抑又深度之, 兄之鰲眼問榮道, 豈非由我一誠之致歟? 以是言之, 亦可謂爲兄無負者也."

의 심화 - 갈등의 최고조 - 갈등의 해소', '발단, 전개, 절정, 결말'로 나누어 보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성훼절 설화가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도 함께 파악해 보았다. 갈등의 시작은 비슷한 환경에 처한 두 사람이 과거시험에서 한 사람은 급제하고 한 사람은 떨어지면서 생겨나게 되었다. 갈등의 심화는 서로 다른 사회적 지위에서 김생이 이생의 경직된 성관을 고쳐주기 위해 시작하는 이생을 훼절을 모의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남성훼절 설화의 수용양장이 잘 드러나고 있다. 훼절 음모자는 여러 가지 설정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하는데 이는 무절제한 호색행각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한 것이다. 수척해진 얼굴로 상격한 이생을 보고 부모들이 근심하고 종들이 초라한 모습을 의심스러워하자 이생은 병이 들어 그렇다고 거짓말을 한다. 이러한 모습에서 주인공의 잘못된 행동을 꾸짖기 보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폐단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남성 훼절담을 다룬 세태소설은 남 주인공이 모두 여성에게 초연한 도덕군자로 행동한다. 이는 조선조 유교이념으로 보면 합당한 인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유교이념에 따라 행동하는 그들은 하나같이 중세적 사고에 묶여 있는 인물이다. 그러기에 그들의 사고는 경직될 수밖에 없고, 그들의 행동은 새로운 가치관에 적응하지 못했던 것이다. 당시 관인사회에서 관리로 임명되어 임지에 도착하면 누구나 미색을 골라 수청을 받으며 향락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는데 주인공들이 색을 멀리하겠다고 장담하면서부터 훼절은 시작된다. 이러한 관례를 거부한 주인공은 그 당시 향락과 호색에 물들어 있는 다른 사대부 계층이 주인공들을 훼절하게 하여 호색성을 폭로시키고 망신당하게 한다.

그들은 공모자의 개입으로 여성에게 훼절당한다. 그리고 그들은 한 번 훼절당한 뒤 여색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했던 처음과는 달리 색에 대해 탐닉하게 된다. 이는 그들의 고정관념이 깨짐을 의미한다. 즉, 자신들이 지켜왔던 그 가치관은 이제 버려야 할 단계까지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조선후기의 도덕관은 중세의 도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도덕관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하겠다. 조선후기로 접어들면 중세의 도덕적 · 관념적인 삶을 부정하고 현실에 밀착된 세속적인 삶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갈등의 최고조는 가짜로 이생을 죽게 하고 이생에게 망신을 주는 장면에서 이생과 김생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좀 더 심해지는 것처럼 보여진다. 갈등의 해소는 이

생이 서울에 올라가 학업을 열심히 하고 암행어사로 제수되어 사회적 지위가 같아지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자신을 망신시켰던 김생을 망신시키고 화해를 하게 되며 둘의 갈등은 해소된다. 그리고 둘의 우정을 영원히 지속된다. 결말 부분이 다른 남성훼절 설화와는 다른 양상이다. 대부분의 남성훼절 설화가 주인공을 망신시키게 되면서 마무리 되지만 <烏有蘭傳>에서는 두 사람의 우정으로 좀 더 확대된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다. 결말 부분이 <烏有蘭傳>이 다른 남성훼절 설화를 수용한 작품들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작품을 구성 단계별로 나눠 보고 각 단계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작품의 중심사건과 남성훼절 설화의 수용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구성단계 | 주요사건 | 남성훼절 설화의 수용 | 갈등양상 |
|---|---|---|---|
| 발 단 | 김생 · 이생의 특별한 관계 설명 | ① 어떤 양반이 금욕적 절조를 내세우며 여색을 멀리한다. | 갈등의 시작 |
| | 김생 · 이생 우정을 맹세함 | | |
| | 김생의 대과 급제 (이생은 진사에 머뭄) | | |
| | 김생의 평안감사 부임(이생 동행) | | |
| 전 개 | 이생이 잔치에서 중도 퇴장 | ② 양반의 태도를 못마땅해 하는 다른 양반이 양반의 훼절을 모의한다.<br>③기녀가 양반을 훼절시키는 책임을 맡고 계획적인 유혹을 한다. | 갈등의 심화 |
| | 오유란 등장 | | |
| | 가짜편지 사건 | | |
| | 오유란의 가사(假死) | | |
| 절 정 | 가귀(假鬼) 오유란 등장 | ④양반이 기녀와 은밀히 정을 나눔으로써 금욕적 절조를 훼손한다.<br>⑤ 훼절을 주도한 양반과 기녀에 의해 양반의 훼절 사실이 폭로된다. | 갈등의 최고조 |
| | 이생이 가귀가 됨 | | |
| | 이생은 속은 것을 깨닫게 됨 (이생의 전신 노출) | | |
| 결 말 | 이생이 서울로 돌아와 학업에 열중, 대과 급제 | | 갈등의 해소 |
| | 이생의 암행어사 출도 (김생의 전신 노출) | | |
| | 이생 · 김생 서울로 돌아와 40여년간 우정 지속 | | |

<표 1> 작품의 구성과 남성훼절 설화의 수용

## 제2절 세태를 반영한 배경설화의 수용

문헌설화 중 양반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살아간 기녀들의 이야기를 서대석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41] 첫째, 기녀가 시나 음률 · 가무에 정통했다는 名技譚. 둘째, 선비와 기녀가 사랑을 속삭였다는 애정담. 셋째, 기녀가 곤궁한 처지의 선비를 도아 주었다는 救人譚. 넷째, 기녀에게 속아서 망신을 당했다는 망신담 등으로 분류했다. 망신담은 자칭 도덕군자인 체하며 기녀에게 속아서 망신을 당하는 이야기로서 사대부나 관료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烏有蘭傳>의 기본 설정은 여색을 멀리한다고 자부하는 양반이 공모자들에 의해 그의 女色性이 폭로되어 망신을 당한다는 망신담의 내용이다.

### 1. 평양기생 이야기 <丁香傳>

먼저 조선 초기 양반을 훼절시킨 설화로 <丁香傳>을 들 수 있다. 이 설화는 讓寧大君과 평양기생 정향의 이야기이다. <丁香傳>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讓寧大君은 불량배들을 모아서 사냥을 즐기고, 孝寧大君 역시 승려들과 어울려 불법을 숭상하는 등 이들의 의도적인 奇行으로 말미암아 왕위가 세종에게 돌아갔다.

어느 날, 양녕대군이 동생 세종에게 關西지방의 유람을 청한다. 세종은 그곳이 色鄕인지라 대군의 몸이 상할까 염려하여 허락하지 않으나, 양녕이 酒色을 멀리하겠다는 다짐을 함으로써 관서행을 허락하게 된다. 또한 대군은 떠나면서 그 다짐의 표시로 沿路의 各邑과 平安一道에 노소를 막론하고 여자는 눈에 띄지 않도록 하라는 공문을 미리 보낸다.

그러나 세종은 대군을 전송한 후, 대군 행차시에 객회의 적막함을 풀어줄 기녀를 천거하는 수령은 특별히 관직을 올려주겠다는 密旨를 내린다. 이에 평안 감사는 기녀들을 모아놓고 이 뜻을 전하자, 丁香이 대군을 모시겠다고 자원한다. 한편, 양녕대군이 평양을 유람하고 객사로 돌아오니 적막하영 通引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고양이 한 마리가 닭다리를 물고 무너진 담쪽에서 달려오는데, 그 뒤로 소복

41) 서대석, 「문헌설화와 고전소설이 대비연구」, 『한국문화』 14,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3, 91쪽.

의 여인이 작대기를 들고 쫓아온다. 이 여인이 바로 정향이었는데, 그녀는 대군의 객사에 돌연히 들어오게 된 사연을 대군께 아뢰어 용서를 받는다. 이를 계기로 정향은 美色으로서 대군을 유혹하게 되고, 유혹에 빠진 대군은 밤이 깊어지자 정향의 집으로 찾아가서 동침을 요구한다. 그러나 정향은 수절과부의 사연을 내세워 자결하려고 하나 끝내는 허락을 하여 잠자리를 함께한다. 그리고 정향은 대군이 평양을 떠나는 날 情表로서 자신의 치마에 대군의 四韻時 一首를 받는다.

대군이 평양을 떠나자, 정향은 그 치마를 관가로 보내고, 평양감사는 그것을 함에 넣어 한양으로 보내니, 세종이 양녕대군의 手迹임을 확인하고 정향을 불러서 궁궐에 머무르게 한다. 한편, 정향에게 속은 줄을 모르는 대군은 상경한 후 세종에게 주색을 멀리하고 무사히 다녀왔음을 아뢴다. 이에 세종은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는데, 이 연회에서 자신의 시가 쓰여진 치마를 입고 춤추는 정향을 본 대군은 모든 것을 깨닫고 다짐을 어긴 것에 대해 세종에게 사죄한다. 세종은 모든 잘못을 자신에게로 돌리고 정향을 대군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내용이다.[42]

이렇듯 <丁香傳>은 양녕이 세종에게 주색을 멀리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간서지방으로 유람갔으나, 세종과 평안감사 및 정향의 계략에 의해 그 다짐이 파기되고 있다. 양녕대군과 정향 사이에 얽힌 이야기는 남성 훼절 설화를 발전시켜 훼절담을 수용한 소설을 등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 [43]

### 2. 曝曬別監[44] 채수의 이야기

다음은 조선 중기의 이야기로서 『어우야담』에 소개되어 있는 포쇄별감 채수의 이야기이다. 포쇄별감 채수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채수(1449~1515)가 포쇄별감이 되어 전주(全州)에 내려갔다. 그는 지방으로 가는 관리들이 객사에 기생을 불러 동침하면서 추문을 일으키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고, '나의 숙소에는 기생을 들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엄명을 내렸다.

여러 날 비가 내려 사고(史庫) 문을 열지 못하고 무료한 나날을 보내니, 전주 부윤

42) 신해진, 앞의 책, 14~16쪽.
43) 김현룡, 『한국문헌설화』 제 4책,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9, 423쪽.
44) 포쇄별감이란, 사고(史庫)에서 서적을 점검하여 축축한 책은 바람을 쏘이거나 햇볕에 말리던 일을 맡아보던 별감(別監)을 말한다.

(府尹)이 판관에게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지시해서 수기(首妓)와 의논해 다음과 같은 일을 꾸몄다.

나이 어리고 얼굴이 예쁜 기생을 가려 하얀 소복을 입혀 수수하게 꾸미고, 채공이 유숙하는 객사 가까운 집에서 방아공이로 절구에 방아를 찧게 했다. 그리고 채공이 물으면 서울 재상집 여자 종인데, 천상을 당해 3개월째 머물고 있다고 대답하라 했다.

채공이 소복 여인이 재상집 여자 종이라는 말을 듣고, 이튿날 사관을 시켜 관부(官府)에 알리지 말고 그 여인을 가만히 데리고 오라고 일렀다. 이후로 기생은 밤에 객사에 들어와 채공과 동침하고, 채공은 아무도 이 이을 모른다고 믿고 있었다.

하루는 부윤이 채공을 위해 위로 잔치를 베풀었는데, 채공은 많은 기생들 속에 소복 여인이 끼어 있는 것을 보았다. 비로소 자신이 속은 줄 알았으며, 이후로 숨길 것 없이 밤낮으로 그 기생과 같이 지냈다.[45]

이 이야기는 채수와 관련된 이야기로 기생을 멀리 하려는 남자에게 기생을 종으로 꾸며 남자를 유혹하는 내용이다. 마지막 부분에서 늙은 기생과 한 대화에서 기생을 멀리하려던 남자가 오히려 훼절하기 쉽다고 이야기하면서 경고한다. 이 이야기는 <丁香傳>과 비슷한 구조로 남성 훼절설화를 발전시켜서 소설화했다고 할 수 있겠다. <烏有蘭傳>의 기생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이야기에서 기생은 관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수동적인 역할을 담당했을 뿐이라는 점이다. 좀 더 적극적인 여성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조선후기에 등장하는 <烏有蘭傳>의 오유란이다.

### 3. 거짓으로 귀신 된 기생

다음은 『기문(奇聞)』에 실려 있는 이야기로, 조선 후기에 창작 구성된 설화이다. 함께 공부한 두 선비 중, 여색을 멀리하는 한 선비를 기생으로 유혹하여 훼절시킨다는 설화이다.

두 선비가 형제처럼 다정했는데, 한 선비는 늘 자신은 여색을 멀리하며, 결코 여색에 의해 유혹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런데 다른 친구 선비가 먼저 급제해 成川부사가 되었다.

45) 김현룡, 앞의 책, 406~407쪽.

얼마 후 선비는 친구가 있는 성천으로 갔다. 부사는 반갑게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대하고, 잔치를 베풀었다. 많은 기생이 어울려 풍악에 맞춰 춤을 추었다. 그런데 선비는 자기가 장담한 대로 기생에게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자 부사가 여러 기생을 모아놓고 친구를 유혹하면 큰 상을 주겠다고 말했다.

한 기생이 자원해서 가정집 부인으로 변장하고, 선비가 누각에 올라가 서성대고 있을 때, 그 아래 냇가에 나가 빨래를 하고 있었다. 선비는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다. 여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했는데 여인은 수절과부라 이야기 하고 거절한다. 선비는 절대로 자신을 희롱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늘에 다짐을 하고 둘은 그날 밤을 함께 보낸다.

하루는 서울에서 모친이 위독하니 상경하라는 연락이 왔다. 그래서 선비는 여인에게 말하고 서울에 올라갔다. 중간쯤 가서 모친 병이 나았으니 오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좋아하며 성천으로 돌아왔다. 고을 입구에 오니 길가에 새 무덤이 생겨있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 여자 집으로 가보니 그 여자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다. 슬픔에 잠겨서 힘이 없는 선비에게 귀신이 된 여인이 나타난다. 그러자 선비는 자신도 귀신이 되어서 함께하고 싶다고 칼로 목을 자르려고 한다. 밖에서 준비했던 시체를 하나 던져 넣자 선비는 자신이 죽은 줄 만 안다.

기생과 선비는 밖에 나가서 물건을 집어도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알몸으로 여인과 함께 잔치에 갔다. 기생들과 어울려 춤을 추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만지기도 하고 노는데 부사가 부채로 선비의 등을 치면서

"양반이 대낮에 옷을 벗고 여러 사람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

했다.

선비는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면서, 사람들과 함께 즐겼다.[46]

이것은 고소설 <烏有蘭傳>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로 여색을 멀리한다고 장담하는 정남의 실상이 어떠한가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설화에는 <烏有蘭傳>의 거의 모든 줄거리가 다 나타나 있어서, 상호 연관관계가 있음이 분명한데, 형태로 보아 이 설화에서 소설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47]

위의 세 이야기를 살펴보면, 첫째 훼절 대상자들은 모두 양반으로 여색을 의도적

46) 김현룡, 앞의 책, 434~435쪽.
47) 김현룡, 앞의 책, 436쪽.

으로 멀리함, 둘째 또 다른 양반이 훼절 대상자에게 기생을 접근시킴, 셋째 유혹하는 자는 기생이지만 기생이 아닌 평범한 아녀자로 신분을 가장함, 넷째 유혹하는 여자는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자신이 유혹당하는 것처럼 연극을 꾸며 양반의 유혹함 등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차이점은 시대에 따라 가치관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난다. 조선후기로 올수록 남성 훼절 설화의 양상은 양반을 훼절시켜 망신을 주고, 양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상황 설정이 극적이다. 또한, 조선 후기로 올수록 훼절 대상자인 양반이 기생에게 유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는 모습을 강하게 보인다. 훼절 대상자가 여색에 대해 초연한 듯 큰소리치면 칠수록 그의 위선을 벗기고 망신을 주고자 하는 양반의 의도는 더욱 강해진다.[48]

설화를 소설화한 작품들은 그 변화의 정도에 따라 대개 설화와 별 차이가 없는 작품, 소설 속에 설화적 모티프나 삽화로 일부 차용한 작품, 첫째 부류 보다는 발전하였으나 작가의 창작 의식면을 볼 때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은 중간 작품[49], 이렇게 나누어볼 때 <烏有蘭傳>은 두 번째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烏有蘭傳>의 배경설화로는 남성 훼절설화를 들 수 있다. 훼절 대상자의 위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망신담의 성격도 강하다. 작가의 창작성이 드러나 있고, 훼절 대상자를 속이는 과정이 사실적이다. 인간의 본성인 성적 욕구가 인정이 되고 있으며 이것은 집단적 가치보다는 개인적 가치에 중점을 둔 조선 후기의 사회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배경설화의 수용과정에서 <烏有蘭傳>의 세태소설적 특성이 드러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8) 김복희, 앞의 논문, 68쪽.
49) 최운식, 『한국 서사의 전통과 설화 문학』, 민속원, 2002, 123쪽.

# 제4장 등장인물을 통해서 본 <烏有蘭傳>의 세태소설적 특성

고소설 인물 구성의 특징은 귀족 사회의 자녀를 주인공으로 삼고,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대립시켜 구성해 놓았다. 고소설이 대부분 귀족 사회의 초현실적인 이상주의 문학의 성격을 띠었던 만큼 대부분의 작품에서 귀족 사회의 자녀를 주인공으로 삼았다. 고소설에서 피지배 계급인 평민들이 등장하는 작품은 별로 없다.[50]

이 작품도 귀족 사회의 자녀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의 주요 인물들은 가문이 명문일 뿐 개인의 성격이나 능력은 지극히 평범한 인물들이다. 오유란과 이생, 평양 감사가 된 김생, 그 밖에 김생의 계략에 따라 움직이는 蒼頭와 通人과 樵童이 등장하고 있다. 작품의 주요 인물은 오유란과 이생, 김생이라고 할 수 있다. 등장인물의 성격과 역할 분석을 통해서 <烏有蘭傳>의 세태소설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제1절 억압받던 여성의 변화를 보여주는 인물

이 작품에서 등장인물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사람은 오유란 한 사람 뿐이다. 烏有蘭은 성이 烏有이고 이름이 蘭이다. 작가는 오유란의 이름만은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다. 烏有란 탄식하는 소리, 즉 의성어로 해석할 수 있다. 蘭은 문제를 일으킬 만큼 미색이 매우 뛰어난 여인을 의미한다. 烏有蘭이란 즉 '아아, 蘭이로구나!'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蘭은 뛰어난 미모로 이생이 현실 세계와 비현실 세계도 구분 못할 정도로 그의 정신을 혼미하게 할 여인임을 상징한다. '오유란'이란 이름은 여색을 멀리하던 이생을 유혹하여 훼절시킬 사건을 미리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51]

<烏有蘭傳>에서 오유란과 김생이 공모자의 위치에 있다. 이생을 유혹하라고 명을 내리는 사람은 김생이지만, 그 이후로는 '오유란'이 모든 일을 주관한다. 김생은 단지 필요한 무대 장치(예컨대, 발가벗은 두 사람이 나타나도 아는 체 하지 말라고 함)를 맡아 한낱 조연의 역할(발가벗고 나온 이생의 배를 쿡 찔러서 깨어나게 함)을 할뿐이며, 주동적 역할은 오유란이 맡아 하고 있다.

---

50) 김기동, 『이조시대소설론』, 이우출판사, 1981, 36쪽.
51) 김복희, 앞의 논문, 38쪽.

이생을 유혹하는 역을 맡은 오유란은 능동적으로 일을 꾸민다. 우물가에서 변장하고 빨래를 하면서 이생을 유혹하는 것이며, '묘리'를 써서 귀신이 되게 하는 일, 그리고 옷을 벗고 밖에 나가 더욱 궁지에 몰아넣는 일에 이르기까지 오유란의 활약은 눈부시다. 이처럼 오유란은 '김생'과 공모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김생'보다는 오히려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오유란의 수행해야 할 임무로 보아 미모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래서 소설 속에 나타나는 오유란의 모습은 대단한 미인임에 틀림없으며, 걸음걸이조차 우아하고 단정하다. 다음은 이생을 유혹하기 위해 오유란이 연못에서 빨래하는 장면이다.

**은행나무 밑** 石假山 **가에 있는 우명지에는 두어 자나 되는 은비늘이 마름 위에서 뛰놀고, 둥근 흰 달빛이 물결 위에 넘실거리는 가운데 어떤 한 미인은** 西王母**가** 瑤池**에 내려온 것 같기도 하고,** 楊太眞**이** 太液池**에 내려온 것 같기도 했다. 꽃은 얼굴이 되고** 玉**은 모습이 되어 한 송이** 金蓮花**가 이슬을 머금고 바야흐로 터지려고 하는 것과 같았다. 눈썹은 꼬부라지고 뺨은 통통하였으며, 외롭게 둥근 흰 달빛이 얼굴에 비치고 있었다.**[52]

이생이 잔치를 비판하고 나가자 김생은 이생을 훼절시킬 임무를 수행할 만한 기녀를 물색한다. 오유란은 한 달 안에 일을 수행하지 못하면 죽이겠다는 평양감사 김생의 명령을 받는다. 그녀는 관에 속한 기녀로서 천민에 속한다. 그래서 그녀는 이생을 훼절시키라는 감사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

오유란이 이생에게 처음으로 접근하는 모습에서 그녀의 치밀함과 지혜로움을 엿볼 수 있다. 빨래를 하러 갈 때 흰 옷으로 갈아입고 수절 과부의 신분으로 꾸미고, 이생 앞에 닷새 혹은 사흘 간격으로 같은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는 이생의 마음을 사로잡고 의도적으로 발걸음을 멀리하면서 이생을 유혹한다.

**이로부터 날짜를 헤아리며 그 여인을 기다리는데 오유란은 일부러 함부로 가지를 않았다. 이생은 하루가 삼 년 같았으나 늘 애태우며 기다렸다.(214쪽)**[53]

---

52) 銀杏樹下石假山邊, 數尺銀鱗踴躍於菱茨之上, 一輪金光滉瀁於水波之中, 夫何一美人, 依然若西王母之降瑤池, 呪然若楊太眞之臨太液, 花爲容而玉爲貌, 一朶金蓮含露纔綻也. 眉其曲而頰其豊, 孤輪素月, 容光必照矣.

53) 自是, 計日待女, 女故斬來, 一日三秋, 常心憧憧.

오유란은 이생이 색 그 자체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양반들의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색을 거절한 것이라는 점을 간파하고 기녀의 신분이 아닌 과부의 신분으로 모습을 바꾸어 접근하는 기지를 보여준다. 이생의 성격을 잘 파악한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유혹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기녀의 모습으로 유혹하는 것이나, 과부의 모습으로 유혹하는 것이나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이생에게는 기녀에게 유혹당하는 것은 당대의 관료들이 누리는 향락적 생활을 공공연히 인정하는 것이 되고, 과부의 은밀한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향락적 생활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부 오유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 오유란은 이생을 속이는 과정에서 사실상 자신이 이생을 유혹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자신이 이생에게 유혹당하는 태도를 유지한다.

이생이 오유란과 살아서든 죽어서든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죽겠다고 하자 이생을 가짜 귀신으로 만드는 부분에서 오유란의 기지가 드러난다.

**"사람 중에 병든 사람과 죽은 사람은 귀신이 침범하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 가슴 아파 하는 것에 대한 난처한 정황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낭군을 대접하는 방법은 살아 있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합니다. 병이 들었더라도 슬퍼하지 않는 것은 비록 죽었다 하더라도 살아 있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어서 정신도 그대로 있고 知覺조차도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228쪽)**[54]

오유란의 재치에 속은 이생은 정말로 자신이 죽을 줄 알고 의심하지 않고 귀신인 것처럼 행동한다. 그녀는 이생과 함께 귀신 행세를 하는 장면에서는 민첩함과 다정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녀는 이생에게 우호적이며 악의나 적대감을 보이지 않는다. 또, 이생을 속이는 과정에서 이생에 대한 동정심을 보이기도 한다.

**오유란은 본래 민첩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자주 배고프고 목마른가를 물으며 때때로 좋은 음식을 갖다 대접했다.(230쪽)**[55]

**이생을 계교에 빠지게 해서 죽었다고 한 후로 한 두 가지 슬퍼하는 마음이 없지는**

54) "人之病者殞者, 莫不鬼嘖, 而痛難之狀, 不可書形. 至於以妾待君之道, 不與他同列也. 雖病不痛, 雖殞不異, 精靈自在, 知覺自知."

55) 娘子本是通敏多情之人也. 頻問飢渴, 數進饍, 生咨其飮食所從來.

**않았다.(230쪽)**[56]

오유란은 감사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관기이지만 지혜롭고 당당하며 마음이 따뜻한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다. 감사의 명령에 수동적으로 일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이지만 오유란의 마지막 항변에서 그녀의 적극적이고 독자적인 성격이 드러난다.

**"산 것을 보고 죽었다고 한 것은 산 사람이 스스로 죽지 아니한 것을 판단하지 못한 것이요, 사람을 가리켜 귀신이라고 한 것은 사람이고서 스스로 귀신이 아님을 깨닫지 못한 것이어늘, 속인 사람이 잘못입니까? 속임을 당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너무 지나치게 속인 사람은 혹 있다고 할지라도 속임을 당한 사람으로서는 차마 말할 것이 못되옵니다. 또한 저는 士卒이 되어 오직 장군의 명령을 들었을 따름입니다. 일에는 오로지 맡아 보는 사람이 있고 책임은 귀착되는 바가 있거늘, 어찌 사졸을 베려 하십니까?"(260쪽)**[57]

오유란의 마지막 대답은 이생을 훼절시킨 것은 김생에 사주에 의한 것임을 알리고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말한다. 오유란이 김생의 사주 아래서 자신이 계략을 펼친 것은 맞지만, 본인에 의지가 아니었음을 이야기한 것이다. 모든 사건에 지혜를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지만, 그 배경에 김생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항변은 오유란의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조선후기의 변화된 여성상을 보여준다. 오유란이 관기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양반 사대부들의 보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평민 의식이 성장한 조선후기 사회의 일면을 드러내 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항변에 대해 박기석[58]은 이생에 대한 항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양반 관료 일반에 대한 하층민의 반감이 표출로 설명하고 있다. 오유란의 행위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하층민에 대해서만 횡포를 일삼는 양반 관료들에 대한 저항 의식이 잠재해 있는 것이며, <烏有蘭傳>의 항변에 대한 이생의 승복은 곧 오유란

56) 以生之陷溺之見, 其於云歿之後, 不無一二惻怛之端.
57) "以生爲沒, 生者自不辨不沒, 指人爲鬼, 人而自不覺非鬼, 欺者過歟? 見欺者[過歟]? 過欺者, 雖或有之, 見欺者, 不可說也. 且妾爲士卒, 惟聞將軍令而已. 事有主掌, 責有所歸, 士卒何足誅也?"
58) 박기석, 앞의 논문, 549쪽.

의 승리이며, 양반 관료 사회에서 억눌려 살아야만 했던 하층민의 승리라고 했다. 이석래 역시 기녀 오유란을 통해 양반의 가치 저하를 시도 하고 있는 것[59]이라고 했다. 이러한 해석은 이 작품을 계층간의 대립 부분에만 치중해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 장면 외에 이생과 오유란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 장면을 계층간의 대립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제2절 가치관의 변화를 나타낸 인물

이생은 고소설의 일반적인 주인공처럼 출중한 외모와 뛰어난 학문을 겸비한 인물이 아닌 인간적인 약점을 지닌 평범하고 일상적인 인물이다. 이생은 기녀와 술, 좋은 음식 등을 가까이 하는 양반들의 잔치 문화에 대해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생은 성에 대해서 경직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 과거에 낙방하여 평양감사가 된 김생이 같이 평양에 가자고 하자 색향이라는 이유로 거절을 한다.

**"자네는 나라를 위하여 백성을 근심하는** 承宣刺史**요, 나는 오직** 聖賢**을 배우고 사모해야 할 공부하는 선비일세. 마땅히 지켜야할 본분과 가야 할 길이 서로 달라서 마음씀이 같지 아니하니 이것만으로도 불가할 뿐만 아니라, 또한 평양은 예로부터 번화하고도 기상이 드센 곳이므로 내가 돌아볼 곳이 못되네."(211쪽)**[60]

공부하는 자신을 위해서 베푼 잔치에서 기생들이 자신에게 술을 권하고 노래를 부르자 이생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다. 이러한 이생의 모습은 전형적인 선비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경직된 성관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생은 선비로서 도덕적 유가 이념의 실천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생을 맞이하여 자리를 정하고 인사를 겨우 마치고 나니, 좌우에 앉아있던 기생들이 다투어 술잔을 권하며 노래 한 곡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때 이생은 왈칵 화를 내며 소매를 뿌리치고는 갑자기 일어나 물러가겠다며 말했다.**

---

59) 이석래,「<오유란전> 연구」,『성심여대논문집』11. 1980. 15쪽.
60) 生曰: "君則爲國憂民承宣刺史也. 余惟學聖慕賢工夫士子也. 分職殊塗, 操心不同, 此不啻不可. 且箕城 古來, 繁華豪蕩之地, 余所不顧."

**"오늘의 이 잔치는 정녕 인간의 도리를 위한 것이 아니오."**
**감사가 소매를 붙잡고 웃으며 말했다.**[61]

평양감사인 김생은 기생과 즐기는 향락 생활을 양반 관료 사회의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김생과 생활 방식이 다른 이생으로서는 기생의 생활 모습이 인간의 도리에 어긋난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생은 자신의 가치와 배치되는 감사의 주연을 직접적으로 거부한 것이다.[62] 김생과 가치관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위치의 차이로 인한 이생의 갈등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생의 이런 극단적인 행동이 김생으로 하여금 오유란에게 이생을 훼절시키도록 명령한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오유란을 만나고 난 이후의 이생은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과 다른 성격을 보여준다. 기녀를 뿌리치던 모습과는 달리, 오유란을 보지 못하자 상사병까지 걸려 앓아눕는다. 오유란이 백년가약으로서 유혹하고 배신할 수 있음을 염려하자 이생은 선비의 지조를 걸고 평생을 같이할 것을 약속한다. 오유란을 향락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어인 말씀입니까? 금석같이 굳은 기약을 할 수 있으며, 일월을 두고 맹세도 할 수 있습니다. 낭자께서는 이미 정렬의 마음이 있고 나 또한 지조 있는 선비이니,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을 우리 두 사람이 서로 알아주어 한 마음으로 서로 맹세한 후이면 나의 뜻을 앗을 수 없을 것이고 낭자의 마음도 또한 더욱 굳어질 것입니다. 또한 살아서는 마땅히 함께 같은 방을 쓸 것이고 죽어서는 마땅히 함께 묻힐 것입니다. 말이 길어지니 날 또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217쪽)**[63]

오유란의 거짓 죽음을 대하는 이생의 태도에서 작가는 이생이 본래 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다.[64] 초동에게서 자신이 말없이 떠나 오유란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짜 무덤 앞에서 제문을 읽는다. 이 부분에서 이생의 다정다감한

---

61) 延生定坐, 寒喧才畢, 左右紅粧, 爭進獻酒, 唱歌一闋之除, 生勃然拂袂, 忽起告退曰: "今日之事, 誠非爲人之道也."
62) 박미선, 앞의 논문, 30쪽.
63) 生笑曰: "是何言也? 金石可期, 日月在彼. 娘旣烈心, 我亦志士, 兩人心事, 兩人相知, 一心相盟之後, 吾志不可奪, 娘心尤可固, 生當同室, 死當同壙. 言之長也, 日亦暮矣."
64) 生元來有情之人也. 精魄遍散, 心腸摧裂, 自不禁悲, 殆若狂醉之樣.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65]

오유란의 거짓 무덤 앞에서 술과 과일을 차려놓고 제문을 지어 읽어주는 이생의 모습은 매우 진지하다. 예를 갖추지 못했지만 백년해로를 약속했었고, 자신으로 인해 병들었는데 약 한 첩 지어 주지 못한 것을 슬프고 원통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오유란과 영원히 사랑을 즐기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암행어사가 출두했을 때 평양 감사는 어사가 전날의 이생임을 알고 걱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생이 정이 많아 친구인 김생을 징계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어사는 일찍이 인정이 없는 사람이 아닌지라 모름지기 그 말을 듣고 낯익은 얼굴을 한 번 보게 하니, 오유란이 몸을 드러내어 살짝 쳐다보고 생긋 웃으며 말했다.(240쪽)**[66]

속임을 당한 사실을 깨달은 후 이생은 변화된 성격을 보인다. 암행어사가 되어 오유란과 김생 앞에 등장하는 이생의 모습은 여유 있고 당당한 위정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김생과 화해하며 오유란을 용서한다. 이생의 위정자로서의 모습을 끝 부분에 요약적으로 제시되었다.

**술잔치를 베풀고 그 옛날의 정회를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날을 머물렀다. 어사는 여러 訟事를 다스림에 있어서 옳은 것은 옳은 대로, 죄는 죄대로 처리하였고, 가는 고을마다 守令들을 포상할 만한 자는 다 포상하고 떨어뜨릴 만한 자는 떨어뜨리면서 일마다 뚜렷하게 밝게 살피니, 한 사람도 억울한 일이 없었다. (240쪽)**[67]

---

65) 娘子平生, 凡流絶殊, 如有知於九原, 顧復賜於一見, 感趙郎之至情, 續愛卿之前緣.
文不盡言, 言不盡意. 嗚呼哀哉! 尙饗.
每讀一句, 呑聲於悒. 告訖, 扣墳放哭, 氣塞者三. 奴爲之悶然, 以手扶起曰: "事之已矣. 徒增傷感, 自重尊体, 少加寬抑焉." 生飮泣哽咽曰: "爾安知之哉? 吾於此人, 雖無侶皮之聘, 曾有結繩之約. 由我而病, 病不遺藥, 由我而殞, 殞不臨訣, 豈不寃哉! 豈不悲哉! 哭不爲彼, 爲我之私, 私不在我, 而在彼之情, 情私交切, 孰不如此? 非我而使汝當之, 則能獨不然哉?" 仍擧袖拭淚, 取水洗面, 扶倚上馬, 轉投宣化堂.

66) 御史未嘗不有情者, 要其聽言而一見故顔, 乃露身蘭暫, 顧仰視乍笑曰.

67) 乃取酒設宴, 討盡故情, 留延數日, 凡他訟理, 事其事而罪其罪, 一路守令, 褒者褒而貶者貶, 歷歷昭察, 無一寃屈.

고소설의 주인공은 그 인물의 전기적 요소가 드러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그러나 이생은 고소설의 일반적 주인공처럼 외모도 출중하고 학문이 뛰어난 인물도 아니다. 立身揚名을 목표로 노력하고, 사랑에 빠져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친구와의 우정을 회복하는 것을 보면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간적인 약점을 지닌 인물이라는 점에서 근대적 인물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당시 대부분의 양반들이 지향했던 바람직한 인간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立身揚名을 위해 노력하고, 마침내 그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이다. 훼절을 당하기 때문에 주동적 인물의 기능은 미약한 것 같으나, 자신이 원하는 사회적 위치를 갖게 되었고 친구와의 우정 회복을 통해서 바람직한 인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생은 <烏有蘭傳>에서 훼절당하기 전과 훼절의 과정, 훼절 후의 모습이 변하는 입체적인 인물로 나타난다. 도덕적 유가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절개 있는 선비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오유란에 의해 훼절의 과정에서는 적극적인 사랑을 구애하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변화한다. 마지막 훼절 후에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정서적으로 여유로운 면모를 가진 위정자의 모습으로 변화한다.

이처럼 이생은 고소설의 등장인물과 다른 근대적인 인물이며, 성격이 변화하는 입체적인 인물라고 할 수 있다.

## 제3절 상층 관료의 이념을 드러내는 인물

조선시대는 남녀간의 교제를 엄격히 제한하면서도, 남성 지배층들에게는 관기제도 등을 통해 사실상의 자유로운 향락 생활을 공인하는 자기 모순적 관행을 유지하고 있었다. <烏有蘭傳>의 김생은 현실적 관행을 따르는 인물로 상층 관료의 이념을 드러내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잔치 자리에서 이생의 경직된 태도는 그 당시 관료들의 눈에는 사회성이 결여된 모습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김생은 이생의 이러한 경직된 성관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생을 훼절시키려고 한다. 두 사람의 갈등은 도덕적 가치관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김생은 우정을 중요시 하는 인물로 이생의 망신이 목적이 아니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서 금이 간 우정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훼절을 사용하였고 할 수 있다. 김생이 평양감사가 되어서 이생에게 평양을 함께 가기를 권하자 이생은 평양이 색향이라 기생의 제의를 거절한다. 그러나 김생은 우정을 맹세했던 옛 일을

확인시킨다. 이 부분에서 김생이 우정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감사(김생)가 말했다.**
**"번화한 것은 번화한 것이고 공부는 공부이거늘 그대의 말은 지나치게 고루하네. 어찌 꺼림이 있으며, 처음에 맹세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가?"(211쪽)**[68]

김생은 부임인사를 하고 난 후, 깊숙하고 고요한 곳에 별당을 깨끗이 청소하고 경서를 갖춰놓아 이생이 조용히 거처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친구를 배려하고 우정을 중시하는 김생의 성격을 보여주는 행동이다. 또한, 김생은 공부만 하는 이생을 위로하기 위해 잔치를 베풀어 준다.

**"오늘은 바로 그대가 과거에 시험보고는 처음 맞이하는 생일인데,** 『詩經』**의 어버이를 봉양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읊은** 蓼莪之章**을 누구인들 능히 폐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날씨가 따뜻하고 바람도 잔잔하여 친구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 간절하니, 그대는 부디 바삐 와서 한번 성긴 우정을 풀어봄이 좋은지 모르겠으나 어떠한가?"**[69] **(211쪽)**

그러나 이생은 자신에게 베푸는 김생의 호의를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비판한다. 이생의 경직된 태도는 양반관료들 사이에서는 비웃음의 대상이 된다. 김생이 이생을 타일렀으나 그의 행동을 만류시키지 못하자 오유란에게 이생을 훼절시키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이생은 도덕규범에 철저하려고 하는 인물이고, 김생은 예외를 두어 현실적 관행을 따르는 인물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가치관의 차이는 크다. 이로 인해서 생긴 갈등은 상대방을 설득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생 스스로 자신의 주장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김생은 오유란을 시켜 자신의 입장과 동등하게 만들려고 한다.

**"네가 이생을 호려서 모실 수 있겠느냐?"**
**오유란이 대답했다.**

---

68) 伯曰: "繁華自繁華, 工夫自工夫, 兄言甚固也. 何妨之有? 不記初日之矢言乎?
69) "今日, 卽兄及第之初度, 詩人蓼莪之章, 疇能不廢哉? 日暖風和, 故人情緖, 切摯於中, 兄須不遐金玉, 一番疎暢, 未知何如耶?"

**"하루 저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원컨대 한 달의 말미만 주신다면 반드시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가 말했다.**

**"한 달의 말미를 주고서도 혹시 하지 못할 때에는 죽여도 좋겠느냐?" (212~213쪽)**[70]

김생은 사건의 창출자이며 공모자이지만 직접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조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오유란과 이생의 밀회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는 부친이 위독하다는 가짜 편지를 만들고, 오유란이 죽었다는 가짜 무덤을 만드는 등 사건의 배후에서 전후 사정을 알면서도 모르는 체 하며 능청을 부린다. 다음의 사건은 김생의 능청스러운 성격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튿날 아침, 한 동자를 시켜 별당에 가서 안부를 전하게 했다.**

**"요사이 氣體가 어떠신가? 공부에 더욱 힘쓰고 있는가? 봄의 새는 남쪽을 그리워하고 가을의 말은 북쪽을 싫어하니, 객지에서의 마음이 울적함은 피차가 일반이네.陳蕃의 榻이 걸린 지가 여러 날이 되었으니 나를 찾아오지 않은 지가 꽤 된 셈인데, 왕휘지가 보고 싶은 安道를 방문하고자 했던 것처럼 나를 찾아올 생각은 어찌 않는가? 잠깐 옥체를 굽혀 친구의 소망을 저버리지 말게나."**

**이생은 이미 전날의 이생이 아니었다. 날씨가 화창하고 호탕한 기분이 넘쳐서, 한번 친구끼리 서로 만나 한 달이 넘도록 막힌 情懷를 펴보리라 마음먹고는 즉시 선화당으로 갔다. 서로 안사 치레를 마치니, 감사가 이생을 위로했다.**

**"그대는 공부하는 데에 과로하였던가? 음식이 맛이 없던가? 요사이 얼굴이 어찌 그리도 수척한가?"**

**이생이 대답했다.**

**"객이 된 사람으로서 자연 생각이 많아 그런 것이겠지."**[71]

이생의 얼굴이 수척해진 이유를 알고 있으면서도, 공부하기에 과로하였느냐며 모

---

70) 曰: "汝能押侍否?" 曰: "非一夕之可能, 願給一月之由則必矣." 曰: "給由一朔之後, 如或不能則限死."

71) 翌朝, 使一童傳喝於別堂曰: "近日體宇, 何如? 工做益勤否? 春鳥戀南, 秋馬悲北, 旅懷盍抑, 彼此一般. 陳蕃之榻, 縣有日矣, 安道之訪, 肯無意歟? 暫屈賁趾. 毋負故人之望焉." 生旣非前日之生也. 日事和暢, 豪興猶餘. 要其一番盍簪, 以攄逾月阻懷. 卽投宣化堂, 相揖禮畢, 伯慰之曰: "兄文字上過勞耶? 食飮間不甘耶? 近者, 玉宇, 何其瘦減?" 曰: "爲客者, 自然多慮而然."

르는 척 위로를 하면서 이생의 마음을 떠보는 능청을 부린다. 그리고 이생을 훼절시키기 위해서 가짜 편지를 만들어서 오유란과 이별하게 만든다. 다시 돌아왔을 때 가짜 무덤을 만들고 오유란이 가짜 귀신 사건을 펼칠 수 있는 무대장치를 만들어 준다. 자신이 직접 공모자로 나서지 않고 배후로서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다. 그리고 이생이 확실히 훼절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도록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귀신 행세를 하는 오유란과 이생을 모른 체 하도록 사람들에게 명령한다. 결국 이생은 귀신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여러 사람 앞에 난다. 김생은 이생이 사람들 앞에 벗은 몸으로 나타났을 때 담뱃대로 이생의 배를 쿡 찌르면서 "그대는 이 무슨 꼴인가?"[72] 라고 말하며 자신이 배후에 있었음을 드러낸다.

이와 같이 김생은 능청스러운 성격과 해학을 좋아하는 성격은 결말 부분에서도 나타난다. 암행어사가 출두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해학을 좋아하고 여유가 있는 성격이다.

**감사는 본래 해학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잘하는 사람이었다. 황급한 상황 속에서도 계월이의 가는 허리와 사타구니 사이를 손가락질하며 희롱의 말을 했다.**

**"추위를 당하여 감기가 들었느냐? 어찌 그리도 콧물을 많이 흘리느냐?"(237쪽)[73]**

김생은 어사가 친구 이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생 앞에 떳떳하게 "친구 평안하셨는가?"[74]라며 능청스럽게 인사한다. 그리고는 자신이 이생을 망신시킨 것으로 인해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 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 부분을 통해서 김생이 두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같아지고,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해 우정을 영원히 지속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감사는 앞으로 나아가서 어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대는 진정 男兒로서 뜻을 이룬 사람이라고 말할 만하니, 자네가 이루고자 한 일은 드디어 이우러진 것이라네. 오늘 내가 경악하고 황급하고 곤경에 빠졌던 것으로 말하면, 도리어 그대가 옛날에 속임을 당한 것보다 못하지 않을 것일세. 한 번 깊이**

72) "吾兄長者, 此何樣也?"
73) 使道本是好善諧謔者也. 憂患之中, 指桂月纖腰殘脚之際, 而戲言曰: "當寒觸感否? 何其鼻水之多流耶?"
74) "故人平安否?"

**생각해 보면, 그대가 별안간 영화의 길에 올랐음은 어찌 나의 한결같은 정성의 소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가? 이로써 말할진대 또한 그대는 나의 정성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네."(239쪽)[75]**

김생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조선시대에 관료의 생각이나 사회적 지배계층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자신의 권력으로 기녀인 오유란의 목숨을 가지고 이생을 훼절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가짜 편지 사건에서 하인들을 이용하여 김생을 속인다. 또 가짜 무덤, 가짜 죽음의 사건에서는 이생을 속이기 위해 마을 사람 모두를 공모자로 참여시켜 버린다.

김생이 이생과 사회적 지위의 차이, 가치관이 차이로 생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건을 창출했다. 자신이 직접 이생과 부딪쳐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보다 이생 본인 스스로가 변화할 수 있도록 계략을 세우고 오유란을 이용한다. 그리고 오유란이 주동적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은 공모자, 조연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한다. 결국엔 자신이 의도했던 대로 이생을 훼절시켜 경직된 성관을 변화시키고 금석같이 맹세했던 우정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었다.

김생 또한 고소설의 등장인물과 달리 외모가 출중하지도 않고, 출생이 비범하거나 능력이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다. 우정을 중시하고, 해학을 좋아하는 능청스러운 평범한 인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烏有蘭傳>의 인물을 살펴보았다.

이생은 유교적 규범의 준행을 고집하며 도덕군자를 지향하는 인물로 죽마고우인 김생의 계략으로 기생 오유란에게 훼절하는 인물이다. 여색에게 무관심한 도덕군자를 자처하고 있으나 오유란을 단 한 번 보고 미색에 침혹될 만큼 도덕군자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이생의 훼절은 그러한 위선 뒤에 숨겨져 있는 선비들이 이중인격을 폭로하는 데 목표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김생은 조선사회의 이중적 규범에 적응한 인물로 공부를 하는 것과 현실사회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생을 훼절시켜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지도록 사건을 만들어 낸 인물이기도 하다. 오유란은 본래의 직업은 미천한 신분의 기생으로써 뛰어난 지략과 미모를 가지고 있다. 김생의 명령으로 접근하지만, 이생을 훼절시키는데 있어서는 능동적으로 계략을 만들어내

75) 伯進前握手曰: "兄眞是男兒, 可謂有志者, 事竟成也. 今日, 弟之驚急困境, 反不負兄之昔者見欺, 抑又深度之, 兄之鰲眼問榮道, 豈非由我一誠之致歟? 以是言之, 亦可謂爲兄無負者也."

고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조선후기 세태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주로 평범하고 일상적인 인물들이 등장한다. <烏有蘭傳>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영웅적이거나 능력이 특출한 사람이 없다. 평범한 사람들이 등장해서 자신의 성격적인 결함을 해결하거나, 개인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조선 후기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근대적인 여성 오유란이 사건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사건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비현실적이지 않고 조력자의 도움 없이 문제를 잘 해결한다.

# 제5장 표현 미학적인 측면에서 본 <烏有蘭傳>의 세태소설적 특성

## 제1절 사실 묘사

세태소설은 세태 묘사가 사실적이며 소재 역시 현실에서 취하고 있다. 고소설에서 주인공 앞에 놓인 세계는 자기 힘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세태소설에서는 사실적인 사건을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조선후기에 등장한 세태소설에서도 묘사가 사실적으로 제시된다. <烏有蘭傳>의 사실 묘사 부분이 드러나는지 확인하고, 작품의 세태소설적 특징을 파악해 보기로 하자.

<烏有蘭傳>에서 글공부만 하는 이생을 위로하기 위해 김생이 마련한 잔치 장면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 **42주의 많은 고을 원님들이 좌우로 늘어 앉았고, 72명의 수많은 기녀들이 앞뒤로 모시고 앉아서** 琴瑟管絃**등의** 五音**을 방안에서 연주하고 있었으며,** 金石匏土**등의** 八音**을 뜰에서 번갈아 연주하고 있었다. 그릇에 담긴 음식들은 풍성하고, 술잔은 빈번히 서로 오가고 있었다.**[76]

잔치 이후에 이생을 훼절시키기 위해 등장하는 인물 오유란의 미모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생을 훼절시키기 위해서 미모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매우 아름다운 모습으로 묘사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 **은행나무 밑** 石假山 **가에 있는 우명지에는 두어 자나 되는 은비늘이 마름 위에서 뛰놀고, 둥근 흰 달빛이 물결 위에 넘실거리는 가운데 어떤 한 미인은** 西王母**가** 瑤池**에 내려온 것 같기도 하고,** 楊太眞**이** 太液池**에 내려온 것 같기도 했다. 꽃은 얼굴이 되고** 玉**은 모습이 되어 한 송이** 金蓮花**가 이슬을 머금고 바야흐로 터지려고 하는 것과 같았다. 눈썹은 꼬부라지고 뺨은 통통하였으며, 외롭게 둥근 흰 달빛이 얼굴에 비치고 있었다.(213쪽)**[77]

---

76) 四十二洲官長, 列坐於左右, 七十二名妓女, 侍倍於前後. 琴瑟管絃五音, 繁於房中, 金石匏土八音, 迭於階畔, 杯盤狼藉, 觥籌交錯.

오유란의 미모를 보고 반해버린 이생이 오유란에게 접근하는 모습도 다른 동물들에 비유해서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으며, 이생의 행동을 보고 놀란 오유란의 얼굴 표정도 눈앞에 펼쳐지듯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이생은 오랫동안 기다린 뒤인지라 그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은 애타고 뜻이 넘쳐나니, 발은 나아가고자 하나 머뭇거리고 입은 말하고자 하나 우물거리기를 몇 번이나 되풀이했다. 그러다 體面을 돌보지 않고 사나운 호랑이가 수풀에서 나오는 자세로 걸어가며, 푸른 매가 꿩을 채가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접근하였다. 오유란은 반은 놀라고 반은 의아한 채 어리둥절한 듯, 부끄러운 듯이 몸을 일으켜 앵두 같은 입술을 반쯤 열어 말했다.(215쪽)**[78]

부친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을 다녀온 후, 오유란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이생은 죽을 듯이 큰 슬픔을 느낀다. 그리고 오유란이 죽었다고 믿는 이생이 별당에 돌아왔을 때, 별당의 모습이 이생의 기분처럼 우울하고 슬프게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묘사가 이생의 사랑이 진실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장치적 역할을 하고 있다.

**화기롭게 모여서 서로간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이생은 피곤함을 핑계하고는 이전에 거처하던 별당으로 물러갔다. 나나니가 집을 지었고 다리가 긴 거미들이 방안에 기어다니는 등 거칠고 쇠락하여 사람은 볼 수가 없고, 오직 뜰 안의 꽃만이 바야흐로 피어서 웃는 듯이 사람을 맞이하고 있고, 섬돌의 풀은 이슬을 머금고 있어 사람으로 하여금 눈물을 더하게 할뿐이었다. 주인은 다시 왔건만 낭자는 어디에 갔는지 별당만이 우뚝이 홀로 남아있었다.(223쪽)**[79]

오유란과 함께 가짜 귀신이 된 이생이 자신이 죽은 줄 알고 가벼운 홑옷만 입고

---

77) 銀杏樹下石假山邊, 數尺銀鱗踴躍於菱茨之上, 一輪金光滉瀁於水波之中, 夫何一美人, 依然若西王母之降瑤池, 呪然若楊太眞之臨太液, 花爲容而玉爲貌, 一朶金蓮含露纔綻也. 眉其曲而頰其豊, 孤輪素月, 容光必照矣.

78) 生久待之餘, 心忙意促, 足將進而趑趄, 口將言而囁喘, 進止數次, 不顧体面, 步如猛虎出林之勢, 接如蒼鷹撲雉之樣. 美人半驚半訝, 若癡若愧, 拂身翻然, 櫻脣半開曰.

79) 穩話未畢, 生告托体憊, 退居故處, 蜾蠃施宇, 蠨蛸在戶, 荒落無人, 惟見庭花方綻, 迎人以笑, 階草含露, 使人添淚. 主人復來, 美人何去? 惟草堂巋然獨存.

밖으로 나갈 때, 양반의 체면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을 사실적으로 묘사해서 글을 읽는 재미를 주고 있다.

**그러나 이생은 자취가 없다는 오유란의 말에 가벼운 홑옷만을 입고 그녀의 손을 붙잡고 문을 나섰다. 나서면서도 자기 몸을 돌아보고는 혹 사람들이 알아볼까 마음을 쓰니, 걸음걸이는** 鮫人**이** 海幕**을 엿보는 것과 같이 조심스럽고, 마음이 꾀꼬리의 집이 바람 부는 가지에 걸려 있는 것과 같이 안절부절이었다. 어느덧 저자 있는 곳을 지나** 吏房**의 집으로 갔다. 3, 4리를 가는 동안 수천 명을 지나친 가운데는 어깨를 스치고 팔을 친 사람이 많았으나 한 사람도 보거나 아는 시늉을 하지 않았다.(232쪽)**[80]

이생이 암행어사가 되어 평양에 다시 왔을 때, 등장하는 장면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매우 생동감있게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암행어사 출두하옵시오!"**

**우레와 번개가 백 리 밖에서 진동하고, 천지가 한 성안에서 뒤집혀지는 것과 같았다.** 官奴**와** 吏房**은 일을 단속하느라 이리저리 분주하고,** 座首**와** 別監**은** 街亭**에 놀라서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있었다. 갈팡질팡 어쩔 줄 모른 것이 마치 솥물이 끓는 것과 같았다.(237쪽)**[81]

이와 같은 묘사를 통해서 작품의 현실성을 높여주며, 좀 더 사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烏有蘭傳>에서는 사건 사이사이에 적절히 묘사를 배치해서 독자가 좀 더 작품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 제2절 풍자와 해학

세태소설에는 성격적 결함을 지닌 인물들이 희화됨으로써 풍자가 곧잘 발생한다.

---

80) 然然其無迹之說, 輕着單衣, 携手出門, 自顧其身, 或恐人知, 步如鮫人之窺海幕, 心如鶯巢之掛風枝, 掩過交市處, 往投吏房家. 所過三四里, 已閱萬千人, 磨肩擊臂者多矣, 一無見知之樣.

81) "暗行御史出到." 雷電驚於百里, 天地混於一城. 官奴吏房, 奔騁於擧行, 座首別監, 瞠若於街亭. 遑遑汲汲, 殆若鼎沸.

특히 세태소설은 풍자 위주로 과장과 대비의 방법을 통해 인물을 희화화시키고 있음이 드러난다. <烏有蘭傳>은 작품 전체에 걸쳐 성격, 구성, 수사 등에서 웃음을 유발하게 하며 전개될수록 웃음은 확대되고 증폭되어 나타난다. 여색이라면 무조건 거부하는 경직된 태도와 융통성 없는 사고방식이 웃음을 자아내게 하면서 훼절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烏有蘭傳>에서 이생의 경직된 성관이 웃음을 만들어 낸다. 김생이 평양에 동행하자고 권유하는 데 평양이 색향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지 않겠다고 거절하면서 웃음을 만들어 낸다. 지나치게 경직된 이생의 태도는 잔치자리에서 더 큰 웃음을 만들어낸다. 기생들이 술을 권하며 노래를 불렀을 뿐인데도 뿌리치고 나오는 부분은 웃음을 만들어 내지만 서술자의 시선은 너그럽지 않다.

**이날 잔치하는 자리에서 이생의 행동을 본 사람이면 어느 누구인들 그의 지나친 고집에 눈살 찌푸리고 비웃지 않았겠는가!(212쪽)**[82]

이생의 지나친 행동가 고집에 대해 작가는 비난하는 감정을 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드러내며 풍자적인 자세를 보여준다. 그러나 <烏有蘭傳>은 훼절 음모자와 훼절 대상자가 친구 사이로 훼절 의도는 악의가 개입되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다만 경직된 성관을 완화시키기 위한 속임수라고 할 수 있다.

여색이라면 무조건 거부하며 도덕군자처럼 보였던 이생이 오유란의 미색에 혹해 빠른 속도로 오유란에게 빠져버린다. 속임수라는 상황 자체가 독자들에게는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했다. 그리고 이생의 생각이 처음과 다르게 바뀌는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웃음을 유발한다. 즉 독자와 작가, 훼절 음모자, 훼절 수행자가 모두 알고 있는 속임수를 이생만 모르고 있다는 상황 자체도 웃음이 나오지만 이생이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 더욱 웃음을 증폭시킨다. 조롱이 섞인 풍자가 아니라 악의 없는 웃음인 해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생이 한 번 보고는 비록 곧은 지조를 지키고 있는 선비였지만** 傾國**의** 美色**임에 몰래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은밀한 눈길로 연정을 보내면서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213쪽)**[83]

82) 是日宴席, 見生之擧措者, 孰不嚬笑其過執也?
83) 生一顧眄來, 雖以士子之守貞, 暗嘆美色之傾國, 流睨送情, 望望看看.

**이생이 오유란을 본 후로 방탕하여져서 공부하는 마음을 멀리하고 한번 보면 두 번 보고 싶고, 두 번 보면 세 번 보고 싶고, 네 번 다섯 번 봄에 이르러서는 오로지 그녀가 있는 곳에만 마음을 두어 오장육부가 저절로 해이해지고, 공부해도 힘쓸 줄 모르고,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했다. (214쪽)**[84]

도덕적으로만 보였던 주인공이 심리적 갈등이나 장애도 없이 급속히 타락해 버림으로써 처음의 기대와 결과가 상이한 데서도 웃음을 유발한다. 기녀와 통정도 거부하던 이생이 아무런 갈등도 없이 과부와 통정함으로써 타락의 정도는 더 심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기대를 품게 하고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설정이 웃음을 유발하게 하는 요인이다.

김생은 부친의 병환이 위중하다는 가짜 편지를 전해주면서 골려 주려고 한다. 여색에 빠져 얼굴이 수척해진 이생에게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 공부를 하느라 그러냐고 희롱하며 묻는다. 이에 이생은 객이 된 사람으로 자연 생각이 많아 그렇다고 대답한다.

**감사가 이생을 위로했다.**
**"그대는 공부하는 데에 과로하였던가? 음식이 맛이 없던가? 요사이 얼굴이 어찌 그리도 수척한가?"**
**이생이 대답했다.**
**"객이 된 사람으로서 자연 생각이 많아 그런 것이겠지."(218쪽)**[85]

여기서 여색에 빠져 얼굴이 수척해졌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도 모르는 채 능청을 떨며 말하는 것은 이생을 비웃으며 희롱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자신이 여색에 빠져 있음을 숨긴 채 위선을 떠는 모습에서 풍자적 웃음이 유발된다. 부친이 위독하다는 김생이 꾸민 가짜 편지를 받고 상경하는 이생의 모습은 더욱 희화된 모습이다.

---

84) 生之見女, 而放蕩曠工之心, 一見加一層, 二見加二層, 至於四見五見, 一心所在, 五內自解, 工不自勤, 食不自甘.
85) 伯慰之曰: "兄文字上過勞耶? 食飮間不甘耶? 近者, 玉宇, 何其瘦減?" 曰: "爲客者, 自然多慮而然."

**이생은 주저하며 오유란의 살뜰한 정의가 못내 잊혀지지 않아 말을 하려고 하다가는 차마 하지 못하니, 마치 뜻은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같았다 벅찬 가슴을 누를 수 없어 눈물만 떨어뜨렸다. 실은 오유란에게 한 마디도 말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었으나, 이생의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사람의 자식 된 도리로 그런다고 여겨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219쪽)**[86]

오유란에게 이별의 말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떠남을 마음 아파 흘리는 눈물인데 이를 보는 사람들은 부친의 병환을 걱정하여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자식 된 도리로 당연하다고 여긴다고 서술하고 있으나 이생의 태도에 대해 풍자적인 시선으로 표현하고 있다.

부친이 위독하다는 편지를 받고 집으로 향하는 도중 부친이 완쾌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다시 되돌아가라는 사연에 좋아하며 오유란을 다시 만날 생각으로 마음이 급하다. 곧장 말머리를 돌려 빨리 가기만을 재촉하는 데서 여색에 빠져있는 이생의 호색적인 모습을 보다 잘 드러내고 있다.

**이생은 이 기쁜 소식을 듣자 실로 다행이라 여겼고, 또 돌아가라는 분부는 다시없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여 편지의 뜻을 하인배들에게 알리고는 즉시 말을 돌리도록 하면서, 즐거운 듯이 마부에게 분부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휘둘러 빨리 달리기만을 생각하라."**

**마부가 문득 은미한 뜻을 품고는 고의로 말을 잘 몰지 않으니, 말은 가지 아니하고 서서 신음만 한다.(219쪽)**[87]

마부는 말을 빨리 모는 체하면서 이생을 조롱한다. 이러한 이생의 모습이 희화화되 나타난다. 돌아오다가 길가에 새로 생긴 묘를 보고 초동에게 묻자 초동이 대답에서 백년가약으로 유혹해 놓고 떠날 때 아무 말 없이 떠나버린 자신을 그리워하다 죽었다는 오유란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 이야기 속에는 이생을 비난하고 있는 작가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

86) 生躕躇繾綣, 若將言而不忍, 似有意而不吐, 胸臆難禁, 涕流自沾. 實爲娘子之無一言相贈, 而見之者, 以爲人子情礼, 似當然矣.

87) 生旣聞喜報, 實爲萬幸, 而又此反程之敎, 尤啻萬萬奇會, 以此書意, 頒示下輩 卽令回馬. 欣欣然分付於御者曰: "走馬加鞭, 另念疾行."御者頗想微意, 故不善導馬, 不進而殿.

**“새로운 사도가 부임한 후, 관아 안 별당에 거처하고 있는 객으로서 천하의 무도하고 호로자식인 李哥란 자는 감히 도적놈의 마음을 품고 은밀히 짐승의 행동과 같이 몹쓸 짓을 했답니다. 처음에 사귀고자 할 때는 百年佳約으로써 유혹해 놓고, 그 뒤에 떠날 때는 一言半句의 말을 남기는 것조차 아꼈다고 합니다. 그것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인들 사람이 아니겠습니까?(220쪽)**[88]

초동의 대답은 양반들의 무책임하고 향락적인 태도를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다. 초동의 비난이 오유란의 죽음을 사실로 인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면 독자를 풍자적인 감정 상태로 끌고 가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독자들은 초동들이 이생을 희롱하기 위해 훼절 음모자인 김생에게 고용된 인물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생에게 악의 없는 웃음을 짓는다.

죽은 줄로 알고 있는 오유란을 그리워한 탓으로 이생의 수척해진 모습을 보고 김생은 모른 채 하며 이유를 묻는다. 이생은 편지가 온 후 여러 날 길에 머물렀더니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잠을 자도 편치를 못해 그렇다고 대답한다.[89] 이생의 이런 위선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반감을 가지며 풍자적인 시선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생이 오유란을 그리워하며 병에 걸리고 죽음에 이를 정도로 슬픔에 잠기는 부분에서는 속임수에 넘어간 이생을 어리석게 여겨 악의 없는 웃음을 짓게 된다.

오유란을 그리워하며 죽음 직전까지 이르렀던 이생이 가귀로 나타난 그녀에게 속아 자신도 귀신이 되었다고 착각하게 되는 장면에서 해학을 유발한다. 귀신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홑옷만 입고 나가도 괜찮다는 오유란에 말에 속아 홑옷만 입고 나가는 이생의 모습도 웃음을 유발한다. 이방의 집에서 음식을 얻는 과정에 무당에게 속아 넘어 가면서도 자신이 무당을 속였다고 생각하는 순진한 이생의 모습은 웃음을 자아내게 만든다.

오유란이 감사인 김생의 음식을 빼앗아 먹으러 가는데 홑치마만 걸치고 나서면서 이생에게 날이 더워 걱정할 것 없다고 하며 옷을 벗고 가라고 하자 이생이 벌거벗은 채 백주에 대로를 지나는 모습뿐 아니라 상황의 묘사 또한 웃음이 나온다.

**오유란은 단지 홑치마만 걸치고 일어나면서 말했다.**

---

88) 新使道莅榮之後, 衙中客天下不道胡來之子李哥者, 敢懷賊人之心, 陰售如獸之行. 初其親也, 誘之以百年之約, 後其去也, 慳之以半辭之贈. 是可人也, 孰不可人也?

89) “急報以來, 多日在道, 自然食不自甘, 寢不自安而然也.”

**"날이 더워 염려할 것이 없으니, 바라건대 낭군께서는 옷을 다 벗으십시오."**

**이생이 말했다.**

**"어린애가 아니면 어찌 발가벗은 채로 나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오유란이 말했다.**

**"낭군께서는 이미 시험해 보았거니와 다른 사람들 중 누가 알아보았습니까?"**

**이생은 '맞다'고 여기고 발가벗은 채로 문을 나서니 행동은 거만하나 모습은 초라했다. 축 늘어진 男根은 두 팔뚝의 맥박에 따라 끄덕끄덕 하고, 주먹의 半만한 陰囊은 양다리 사이에서 달랑달랑하니, 대낮에 본 사람이면 누구든지 웃지 않을 수 없었지만 엄중한 명령이 내려져 있는지라 감히 지껄이지 못했다. (234쪽)**[90]

오유란에게 속아 자신도 귀신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다고 믿고 대낮에 裸身으로 돌아다니는 이생의 모습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웃음이 나온다. 판소리에서 볼 수 있는 언어적 유희의 일종인 肉談이 가미되어 더욱 해학적인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烏有蘭傳>의 전반부는 풍자와 해학이 어우러져 골계를 이루고 있으나 결말로 갈수록 풍자보다는 해학이 짙어지면서 풍자성은 희석되어 간다. 속임수가 계속될수록 이생의 타락과 호색성은 더해지며 해학도 증폭된다.

<烏有蘭傳>의 대부분은 이생의 호색성을 풍자하면서 독자에게 웃음을 준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은 암행어사 모티프가 설정되면서 남성 훼절형 소설의 보편적인 유형구조와 다른 확장된 구조로 나타난다. 이생과 김생의 위치가 교체되면서 또 다른 웃음을 만들어 낸다.

김생은 암행어사 출두 소리가 나자 급한 나머지 계월이의 뒤집어진 속옷을 걸치고 나온다. 그리고 계월도 벌거벗은 채 뒤따라 나오는 장면은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김생과 계월이 나누는 肉談은 해학적 효과를 더욱 조장한다.

**감사는 본래 해학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잘하는 사람이었다. 황급한 상황 속에서도 계월이의 가는 허리와 사타구니 사이를 손가락질하며 희롱의 말을 했다.**

**"추위를 당하여 감기가 들었느냐? 어찌 그리도 콧물을 많이 흘리느냐?"**

---

90) 娘子只束單裳而起曰: "日炎無慮. 願君盡却衣裳焉." 曰: "不幼之人 ,何可赤身出入乎?" 曰: "君旣試之, 人誰見之耶?" 生以爲然, 赤身出門, 行色偃蹇, 形容伶仃, 列垂金莖, 低昂於雙肘之脈, 半劵銅柱, 擾揮於兩股之際, 白晝所視, 孰不堪笑, 嚴令之下, 莫敢饒舌.

계월이 슬쩍 돌아보며 대꾸했다.

"사또께서는 堂上官에 오르시어 官爵을 수여받았습니까? 어찌 그리 불같은 불알이 우뚝 섰으며 큼직하십니까? 그러하오나 이같은 위급한 때를 만났는데도 희롱의 말이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바라건대 좀 정신을 차려 무사하기를 도모하옵소서."(237쪽)[91]

언어유희는 기존의 소설이 지닌 성어나 난구에 의한 형식적인 문장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언어를 사용해 생생한 모습을 표현한다. 전기 소설의 인물이 지닌 일률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을 다양한 성격으로 변화시켜 풍자의 효과를 강조했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유희를 통해서 인물들의 신분적 격차를 자연스럽게 좁혀준다고 할 수 있다. 김생과 계월이 나누는 肉談은 등장인물의 위엄과 권위적 요소를 제거하고 잠재한 민중의식을 적나라하게 발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듯 <烏有蘭傳>에서는 판소리에서 볼 수 있는 언어유희인 肉談이 해학적 성향을 더욱 짙게 만든다. 마지막 부분에서 역전을 통한 복수가 해학적 웃음을 더욱 풍부하게 한다. 그리고 이생이 자신을 속인 김생과 오유란을 용서하고 서로 도우며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화합된 모습은 기분 좋고 유쾌한 웃음이 된다.

<烏有蘭傳>은 작품 전체에서 풍부한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훼절 사건은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관료들이 자신의 생활을 정당화하기 위해 도덕적 유가이념에 충실한 인물을 훼절시키려 한다. 그래서 이생은 오유란에게 반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자신이 귀신이라 여기다가 잔치자리에서 나체로 망신을 당하게 된다. <烏有蘭傳>에서 훼절 사건은 주인공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양반관료의 가치관이 정당화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성공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생이 당하는 이러한 망신은 하층민의 대변자인 오유란이 상층계층을 풍자하는 것이 아닌 지배계층 내의 모순된 생활을 풍자하기 위한 해학이라고 볼 수 있다. 훼절 사건을 통해서 상층민의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향락적 생활과 그들이 가진 타락한 사고방식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91) 使道本是好善諧謔者也. 憂患之中, 指桂月纖腰殘脚之際, 而戱言曰: "當寒觸感否? 何其鼻水之多流耶?"桂月乍顧而反曰: "使道陞資致位否? 何火腎之出班表顯耶? 然如此厄會之値 戱談何爲? 願少加精神, 便宜圖之."

# 제6장 <烏有蘭傳>의 문학사적 의의

18~19세기는 소설의 창작과 수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이다. 대표적인 작품군으로는 연암소설, 판소리계 소설, 야담계 소설 등으로 사실주의 계열의 작품이 있다. 이 밖에도 영웅소설, 한문단편소설, 가정소설, 애정소설, 몽유소설, 가문소설 등 다양한 갈래가 등장 했다.

세태소설은 위의 소설과 같은 시기를 공존하면서 하나의 작품군으로 소설사적 위상을 가질 수 있다. 그 이유는 세태소설은 연암의 소설과 달리 세태 풍자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세태 묘사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 결과 사회 문제를 개혁하기 보다는 이를 제시하는 작품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또한, 민중의식이 잘 반영된 판소리계, 야담계 소설과 달리 양반을 포함한 일상인의 삶을 다양하게 반영했다. 그리고 세태소설에는 중세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이 공존하고 있어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92]

세태소설은 근대로 이행하는 과도기 작품군으로 그 한계점이 드러나기도 한다. 작가의 개입이 작품의 중간에 나와 고소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세태 묘사 및 제시에 치중하다 보니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래서 세태에 대한 해석이나 평가는 되도록 배제한다.

이러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세태소설은 시대의식을 반영한 근대 지향적인 성격을 가진 소설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세태소설은 주로 서민을 소재로 해서 대중의식을 드러낸 연암소설과 달리 양반의 삶을 소재로 근대의 가치관을 지향한 과도기의 작품군이라는 유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세태소설의 문학사적 의의를 살펴보았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烏有蘭傳>이 가지는 문학사적 의의를 정리해 보겠다.

<烏有蘭傳>은 한문소설로 한문을 할 줄 아는 지식층의 의식을 반영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고소설이 일반적으로 권선징악의 주제를 다루는데 비해 <烏有蘭傳>은 조선 시대 유교적 이념에서 벗어나 개인의 가치를 다루고 있다. 양반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인 立身揚名이 소설의 결말에 드러나 있다. 이것은 <烏有蘭傳>이 근대소설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단서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조선 후기 사회에 반영된 모습을 알 수 있다.

92) 우창호, 앞의 논문, 186쪽.

초동이 평민의 신분으로 양반의 행동을 비난하고, 기녀 오유란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에게 속은 양반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부분은 조선 후기 신분제의 동요와 성장한 시민의식을 엿볼 수 있다.

조선후기 세태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주로 평범하고 일상적인 인물들이 등장한다. <烏有蘭傳>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영웅적이거나 능력이 특출한 사람이 없다. 평범한 사람들이 등장해서 자신의 성격적인 결함을 해결하거나, 개인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사건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근대적인 여성 오유란이 사건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고소설과 같이 평면적인 인물만 등장하지 않고 실제 인물과 가깝게 묘사되어 사건에 따라 성격이 변화하는 입체적 인물도 등장한다. 이러한 인물 표현은 근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현실적인 문제들로 해결과정도 사실적이다. 전기성이나 비현실성을 작품에서 찾아볼 수 없다. 고소설처럼 조력자가 등장하지 않고, 조력자의 도움 없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

조선후기에 등장한 세태소설에서는 묘사가 사실적으로 제시된다. <烏有蘭傳>은 사실 묘사를 통해서 작품의 현실성을 높여주며, 좀 더 사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烏有蘭傳>에서는 사건 사이사이에 적절히 묘사를 배치해서 독자가 좀 더 작품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세태소설에는 성격적 결함을 지닌 인물들이 희화됨으로써 풍자가 곧잘 발생한다. 특히 세태소설은 풍자 위주로 과장과 대비의 방법을 통해 인물을 희화화시키고 있음이 드러난다.

<烏有蘭傳>은 작품 전체에 걸쳐 성격, 구성, 수사 등에서 웃음을 유발하게 하며 전개될수록 웃음은 확대되고 증폭되어 나타난다. 등장인물들이 사회적 지위와 가치관의 차이로 대립하게 되고, 그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성훼절 설화를 수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작품에서는 이생이 도덕군자를 자처하고 있지만, 오유란을 보는 순간 미색에 침혹될 만큼 도덕군자라는 위선에 싸여 있으며 양반의 허위성과 허례의식에 대한 풍자를 불러오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烏有蘭傳>은 개인의 가치를 추구한 제재의 선정, 사실적이고 입체적인 인물의 등장, 사실적인 묘사, 풍자와 해학을 통한 조선후기 사회상 반영 등으로 보아 고소설과 현대소설이 과도기적 단계로 <烏有蘭傳>이 세태소설의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제7장 결 론

이 연구는 세태소설의 개념과 형성배경을 살펴보고, 세태소설의 유형인<烏有蘭傳>의 구조 분석, 등장인물을 통한 세태 반영의 실태, 작품의 표현 특성,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세태소설의 개념과 형성배경을 살펴보았다.

세태소설이란, 모든 시대에 타당한 사회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시기의 풍속이나 세태의 한 단면을 묘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설로, 사건과 전개를 순전히 풍속 세태적인 사실에서 구하는 소설 양식이다. 따라서 세태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특정 시기의 특정 사회적 양상에 타당한 진실을 지닌 인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세태소설은 사회문제를 전면에 부각시키지 않고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조선 후기 세태 소설은 조선후기 작품으로 공간적 배경은 조선이다. 주로 평범하고 일상적인 인물이 등장한다. 또한, 사건 해결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그 당시 세태가 잘 드러나야 한다.

조선후기 세태소설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사회 · 경제적 배경, 예술사적 배경, 사상사적 배경이 있다. 유교 이념이 깊이 뿌리박힌 조선조는 후기로 오면서 신분제를 지켜주던 노비제도가 무너지자 상민이 노비를 소유하고, 노비가 노비를 소유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결국 신분제의 동요와 농 · 상공업의 발달은 봉건제도를 해체하는 촉매 역할을 했다. 예술 분야에도 신분의 차이를 두지 않고 중인, 천민들과 어울려 취미활동을 하는가 하며, 악공들의 지원자가 되기도 한다. 조선후기 세태소설은 이러한 여러 배경을 바탕을 바탕으로 하여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사회와 인간의 모습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곧 세태소설을 통해서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확인할 수 있다. 사상적으로 실학이 사대부 중 양심적인 선비들의 비판의식에 의해 형성되었다.

제3장에서는 <烏有蘭傳>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았다.

<烏有蘭傳>의 서사 구조를 살펴보면, 조선시대 작가들이 사용하던 우연성이나 전기성은 찾아 볼 수 없는 독창성과 참신성이 드러난다. 인물이 평범한 사람으로 그 구성이 단순하게 이루어져 있고, 모든 사건이 현실적이며 필연적으로 전개 되고 있다.

이생과 김생의 사회적 지위 차이로 인한 갈등을 중심으로 '갈등의 시작 - 갈등의 심화 - 갈등의 최고조 - 갈등의 해소', '발단, 전개, 절정, 결말'로 나누어 보았다. 갈등의 시작은 비슷한 환경에 처한 두 사람이 과거시험에서 한 사람은 급제하고 한 사람은 떨어지면서 생겨나게 되었다. 갈등의 심화는 서로 다른 사회적 지위에서 김생이 이생의 경직된 성관을 고쳐주기 위해 시작하는 이생을 훼절시키는 부분이다. 갈등의 최고조는 가짜로 이생을 죽게 하고 이생에게 망신을 주는 장면에서 이생과 김생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좀 더 심해지는 것처럼 보인다. 발단, 전개, 절정 부분에서 남성훼절 설화를 수용한 요소를 찾아볼 수 있었다. 갈등의 해소는 이생이 서울에 올라가 학업을 열심히 하고 암행어사로 제수되어 사회적 지위가 같아지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자신을 망신시켰던 김생을 망신시키고 화해를 하게 되며 둘의 갈등은 해소된다. 그리고 둘의 우정을 영원히 지속된다.

<烏有蘭傳>의 배경 설화로는 남성 훼절 설화를 들 수 있다. 훼절 대상자의 위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망신담의 성격도 강하다. 작가의 창작성이 드러나 있고, 훼절 대상자를 속이는 과정이 사실적이다. 인간의 본성인 성적 욕구가 인정이 되고 있으며 이것은 집단적 가치보다는 개인적 가치에 중점을 둔 조선 후기의 사회상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배경설화의 수용과정에서 <烏有蘭傳>의 세태소설적 특성이 드러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등장인물을 통한 세태반영의 실태를 파악했다.

조선후기 세태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주로 평범하고 일상적인 인물들이 등장한다. <烏有蘭傳>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영웅적이거나 능력이 특출한 사람이 없다.

이생은 유교적 규범의 준행을 고집하며 도덕군자를 지향하는 인물로 죽마고우인 김생의 계략으로 기생 오유란에게 훼절하는 인물이다. 여색에게 무관심한 도덕군자를 자처하고 있으나 오유란을 단 한 번 보고 미색에 침혹될 만큼 도덕군자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이생의 훼절은 그러한 위선 뒤에 숨겨져 있는 선비들이 이중인격을 폭로하는 데 목표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김생은 조선사회의 이중적 규범에 적응한 인물로 공부를 하는 것과 현실사회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생을 훼절시켜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지도록 사건을 만들어 낸 인물이기도 하다.

오유란은 본래의 직업은 미천한 신분의 기생으로써 뛰어난 지략과 미모를 가지

고 있다. 김생의 명령으로 접근하지만, 이생을 훼절 시키는데 있어서는 능동적으로 계략을 만들어내고 적극적으로 행동 한다.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조선 후기의 인물들의 모습과 그들의 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제5장에서는 작품의 표현 특징을 살펴보았다.

<烏有蘭傳>은 작품 사이사이에 사실 묘사를 통해서 작품의 사실성, 현실성을 높였다. 그리고 작품 전체에서 풍부한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훼절 사건은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관료들이 자신의 생활을 정당화하기 위해 도덕적 유가이념에 충실한 인물을 훼절시키려 한다. 그래서 이생은 오유란에게 반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자신이 귀신이라 여기다가 잔치자리에 나체로 등장하여 망신을 당하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에 근거를 두고 대상의 부조리를 폭로하는 풍자성가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또, 판소리에서 볼 수 있는 언어유희인 肉談이 해학적 성향을 더욱 짙게 만든다.

제6장에서 작품이 가지고 있는 문학사적 의의를 파악해 보았다.

<烏有蘭傳>은 한문소설로 한문을 하는 지식층의 의식을 반영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고소설이 일반적으로 권선징악의 주제를 다루는데 비해 <烏有蘭傳>은 조선시대 유교적 이념에서 벗어나 개인의 가치를 다루고 있다. 또한, 초동이 평민의 신분으로 양반의 행동을 비난하고, 기녀 오유란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에게 속은 양반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부분은 조선 후기 신분제의 동요와 성장한 시민의식을 엿볼 수 있다. 고소설과 같이 평면적인 인물만 등장하지 않고 실제 인물과 가깝게 묘사되고, 사건에 따라 성격이 변화하는 입체적 인물도 등장한다. 이러한 인물 표현은 근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현실적인 문제들로 전기성이나 비현실성을 작품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烏有蘭傳>은 사실 묘사를 통해서 작품의 현실성을 높여주며, 좀 더 사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등장인물들이 사회적 지위와 가치관의 차이로 대립하게 되고, 그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성 훼절설화를 수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작품에서는 이생이 도덕군자를 자처하고 있지만, 오유란을 보는 순간 미색에 침혹될 만큼 도덕군자라는 위선에 싸여 있으며 양반의 허위성과 허례의식에 대한 풍자를 불러오게 된다.

<烏有蘭傳>은 개인의 가치를 추구한 제재의 선정, 사실적이고 입체적인 인물의

등장, 사실적인 묘사, 풍자와 해학을 통한 조선후기 사회상 반영 등으로 보아 고소설과 현대소설의 과도기적 단계로 <烏有蘭傳>이 세태소설의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烏有蘭傳>에 관한 분석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았다. 오유란전은 남성 훼절 설화를 수용해서 좀 더 확장된 구조로 발전된 양상을 보여주었다. 사실적인 묘사와 사실적 인물의 등장으로 근대소설적인 모습도 파악할 수 있었다. 풍자와 해학을 통한 표현 특성도 나타났으며, 세태소설적인 특성들이 작품 전체에 분포하고 있었다. 이로써 <烏有蘭傳>에 대한 연구를 마치며,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깊은 연구를 통해서 심도 있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김기동,『이조시대소설론』, 이우출판사, 1981.
_____,『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연구사, 1985.
김현룡,『한국문헌설화』 제3책,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9.
_____,『한국문헌설화』 제4책,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9.
신해진,『譯註 朝鮮後期 世態小說選』, 월인, 1999.
이기백,『한국사신론』, 일조각, 1998.
이석래,『조선후기 소설연구』, 경인문화사, 1992.
조동일,『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1994.
최운식,『한국 서사의 전통과 설화 문학』, 민속원, 2002.

## 2. 논문

곽정식,「<오유란전>연구」, 성엄 이을환 교수 회갑기념, 1985.
김경수,「한국 세태소설 연구」, 서강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김기동,「<오유란전>고」,『국어국문학』 20, 국어국문학회, 1959.
김복희,「<오유란전>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박기석,「<오유란전>소고」,『태능어문연구』 5 · 6집,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5.
박미선,「<오유란전>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박철암,「<오유란전>과 <배비장전>의 대비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박희병,「조선후기 예술가의 문학적 초상」,『대동문화연구』 24, 대동문화연구원, 1990.
서대석,「문헌설화와 고전소설이 대비연구」,『한국문화』 14,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3.
여세주,「남성훼절소설의 구조와 변이양상」,『남성훼절소설의 실상』, 국학자료원, 1995.

우창호, 「조선후기 세태소설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_____, 「조선후기 세태소설의 개념과 그 성격」, 『문학과 언어』 17, 문학과 언어 연구회, 1996.
이경재, 「<오유란전>의 골계성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87.
이상택, 「조선후기 소설사 개관」, 『한국서사문학사의 연구』Ⅴ, 중앙문화사, 1995.
이석래, 「<오유란전>연구」, 『성심여대논문집』 11, 1980.
이수봉, 「세태소설」,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 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이수진, 「<오유란전>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_____, 「<오유란전> 재고」, 『영남어문학』 제 14집, 영남어문학회, 1987.
이원수, 「남성훼절설화의 실상과 의미」, 『국어교육연구』 21집, 경북대 국어교육과, 1989.
이종주, 「세태소설의 변모과정」, 성오 소재영교수 환력기념논총 『고소설사의 제문제』, 집문당, 1993.
이현정, 「19세기 초 세태소설 연구 - <종옥전>과 <오유란전>을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조동일, 「조선후기 소설사의 전개」, 『고전소설 연구의 방향』, 새문사, 1985.
조춘호, 「오유란전 연구」, 『국어교육연구』 17, 경북대학교 국어교육연구회, 1985.

# 저작물 이용 허락서

| 학 과 | 국어교육 | 학 번 | 20048148 | 과 정 | 석사 |
|---|---|---|---|---|---|
| 성명 | 한글: 차선영 | 한문: 車善榮 | 영문: Cha Seon-yeoung | | |
| 주소 | 전남 여수시 율촌면 신풍리 구암 191번지 | | | | |
| 연락처 | 011-9603-8728 | E-MAIL: ggam17@hanmail.net | | | |
| 논문제목 | 한글 : **<烏有蘭傳>의 세태소설적 특성 연구**<br>영문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Ohyouranjeon> Novel of Manners. | | | | |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7년 8월 일

저작자: 차선영 (서명 또는 인)

#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